【1】 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 - 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2년 8월 1일 제 173호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兼編輯人 崔 主 鎬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號 121 - 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 - 2
電 話 : 702-2233~5. 717 - 8536~7.
F A X : 703 - 0755.
銀行지로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날로 탐스러워지는 勉學의 果實

成熟과 硏學 結實을 준비하는 成熟의 계절 8월. 우리 後輩들은 기술을 부리는 伏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國家의 장래를 위해 硏學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①法大 계절학기 수업광경. ②③④는 農大 實習農場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

冠岳春秋

熟成의 季節

이제 中伏도 지나고 末伏을 향해 날씨는 더워만 가고 있다. 大暑를 지나고 立秋도 멀지 않았건만 殘暑의 더위가 猛威를 떨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休暇를 얻어 산으로 강으로 避暑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冠岳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學問에 열중하는 後輩들이 있어 마음 든든하다.

放學中의 강의실에는 季節學期受講生들의 熱氣가 뜨겁고 實習農場에는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더위에도 지치지않고 講義에 熱中하는 敎授들이 있고 땀흘리면서 공부하는 學生들이 있는한 母校의 將來는 밝고 祖國의 未來는 보라빛이 비칠 것이다.

박에선는 土地詐欺꾼들이 6백億원을챙겼다고 한는데 이여름의 무더위에도登錄金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學生들도 많다. 1백億원만 있으면 全校生의 登錄金을 면제할 수 있을 것인데 생각하면 投資順位의 優先을 생각하게도 된다. 寄與金入學制만이 財源마련할 길이라는 생각에 寄與金入學을 고려하고 있는 總長들의 생각에도 동정이 간다. 1백명에게 2億씩만 받으면 全校生의 登錄金을 면제해 줄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가장 優秀한 세계적인 頭腦들을 모아 놓고 낡은 設備 낡은 實驗器資材 좁은 空間때문에 바보를 만들어 내어 보내는 것이 母校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된다. 浦項工大와 母校工大의 비교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大學에 대한 投資가 적어 머지않아 浦項工大나 科技大에 뒤떨어질 것이라는 危機感이 母校에 팽배해 있다. 黑板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人文, 社會系의 投資는 더욱 더 寒心하다.

民族의 大學 世界의 大學을 口號로 綜合化를 시작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冠岳캠퍼스로의 校舍統合은 이루어졌다고 하나 아직도 農業生命科學大學과 獸醫大는 水原에 있고 醫·齒大는 蓮建洞캠퍼스에 있으며 附屬學校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校舍는 많이 증축되었으나 學校敷地는 몇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冠岳山의 山地 6백万坪은 開發制限地域으로 묶여 建物조차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96년이면 開校 50周年을 맞을 母校는 冠岳移轉 20周年을 맞는 96년까지는 統合化도 완료되어야 할 것이요 先進化를 위한 施設擴充도 하여야 하겠고 硏究與件도 完備하여야 하겠다. 第2移動通信, 新空港建設, 高速電鐵 등 經濟基盤造成作業에 정부는 熱을 올리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중한 人材育成에는 등한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熟成의 여름을 맞아 봄에 뿌린 씨앗이 익어 秋收를 기다리는 것처럼 母校도 이제 熟成이 되어야 하겠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學業에 여념이 없는 敎授와 學生들에 대한 國家와 同窓의 지원이 기대된다. 그동안 母校는 大學發展基金造成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成果를 올렸는데 이것도 同窓生과 學父母의 열성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또 同窓會는 금년부터 科學技術發展基金造成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人文·社會科學의 발전을 위하여 模擬法庭이나 模擬國會委員會室도 만들어야 하고 圖書館藏書도 확충해야 하겠다. 日本이나 臺灣의 國民所得이 높고 科學技術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敎育 특히 高等敎育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歐美의 先進國과 같이 되기 위하여선는 母校만이라도 先導的大學으로 歐美先進國大學水準으로 育成하여야 하겠다.

熟成의 季節을 맞아 母校도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겠다. 우리 同窓生들도 母校의 成長을 돕기 위하여 施肥하고 가꾸는 精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支部활성화 雰圍氣 고조

뉴욕·富川支部 새會長 선출

"本部 동창회와 유기적관계도모" 다짐

한여름 불볕더위에도 國內外 동문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한 열의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美洲지역에서는 뉴욕支部가 定總을 열어 새로이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동창회발전을 다지는 한편, 지난 90년 창립된 富川支部도 새회장을 선임, 초창기 支部의 면모를 벗고 의욕적인 사업을 펼칠 각오를 다졌다.

◇14대 국회 개원을 맞아 각단과대학동창회에서는 동문출신의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師大의 축하회광경.

부천支部

同窓會富川支部(회장 金洛律)는 지난 7월 18일 부천 YWCA 버들캠프장에서 92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金회장과 임원진등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축하패증정이 있었는데, 14代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 중乙區에서 당선돼 의회에 진출한 元惠榮(71년 師大入) 동문에게 당선축하패를 증정했고, 또 최근 새마을중앙회 부천지회장으로 취임한 金丁冀(73년 藥大卒) 동문에게는 취임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안건토의에서는 임원개편이 논의돼, 李弘來同會부회장(56년 藥大卒)을 새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金 前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李弘來부천會長

◇李典九뉴욕會長

뉴욕支部

뉴욕支部는 지난 7월 8일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李典九(64년 農大卒·뉴욕골프센터代表)동문을 새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단과대학 대표들을 부회장으로 하는 새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美洲지역에서의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同窓會報의 발행이 시급하다는데 참석동문들의 의견이 모아져 오는 9월부터 月刊으로 회보를 발행할 것을 결의했다.

李典九신임회장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타대학 동창회에 비해 서울대동창회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임기내에 美洲에서 가장 활동적인 동창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보발행을 통해 뉴욕지역뿐 아니라 미주전역의 동문들을 조직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으며, 본부동창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會費보내기 운동을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支部는 지난 7월22일 뉴욕인근에 거주하는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건국대등 각대학동창회초청 친선골프대회를 주최했는데, 오는 8월 9일에는 趙完圭교육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1백여 과학기금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열기로했다.

이번 새로 선임된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李典九(64년 農大卒) △이사장:全應相(52년 工大卒) △수석부회장:李文熙(59년 文理大卒) △수석고문:陳奉日(56년 工大卒) △상임고문:金鍾律(55년 師大卒) △상임부회장:朴熙炳(70년 齒大卒) △홍보부장:鄭光一(85년 農大卒)

育文會 회장에 朴浚圭동문

文理大출신 국회의원 同門모임

모교 文理大출신 국회의원모임인 育文會는 지난 7월24일 여의도 全經聯회관에서 14代국회 출범후 첫모임을 갖고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朴浚圭(48년卒)국회의장을 會長에, 金泳三(51년卒)民自黨대표, 崔永喆(58年卒)부총리겸통일원장관, 蔡汶植(48년卒)前국회의장, 具泰會(50년卒)럭키금성회장등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자는 장기부문에 강욱(56년卒), 백정일(64년卒)동문이며, 바둑부문에서는 이재일동문(79년卒)과 정태웅(59년卒)동문이 각각 우승했다.

興野3당 소속 국회의원, 정부각료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서울大人의 영예를 위해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것을 다짐했다.

同門역량 모아 國政이바지

單大同窓會 국회의원 當選축하연 열려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 모교호암교수회관에서 農大출신 국회의원 당선동문에 대한 축하회를 개최했다.

鄭昌鉉(64년卒), 李榮文(56년卒) 두 당선동문과 沈회장, 高在君 農生大학장, 尹勤煥 前농수산부장관등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축하회에서 沈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두 동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제한 후 『국가발전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쌓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당선동문들은 답사를 통해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동문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師大同窓會(회장 趙鏞樂)는 지난 7월21일 오후 6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師大출신 국회의원당선동문 6명에 대한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하회는 趙회장을 비롯, 黃迪倫사대학장, 사대출신의원 金鍾泌, 李桓儀, 河舜鳳, 李揆澤, 元惠榮동문등(楊淳稙동문 불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趙회장은 인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제한후 『師大출신의 정치인이 교육입국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

金鍾泌동문은 답사를 통해 『현 세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대접받는 것이 송구스러우나, 동문들의 무언중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師範大學동문친선 바둑·장기大會개최

한편 師大同窓會는 지난 7월17일 오전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제15회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했다.

趙회장 취임후 첫사업으로 31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본선 토너먼트, 결선 리그방식으로 진행됐다.

行政大學院 동창회장 俞尙根박사 別世

학교법인 明知학원의 설립자인 俞尙根(62년 행정대학원장·행정대학원 동창회장)동문이 7월26일 상오 서울 中區 新堂洞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충남 부여生인 俞회장은 지난 74년 학교법인 明知학원을 설립한뒤 88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75년 통일원장관, 82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회장, 88년 明知大총장등을 역임했고 지난2월 同大 명예총장에 취임했다.

특히 지난 83년부터 행정대학원동창회장을 맡아 오면서동창회 발전을 일구어낸 주역으로서 타동문들의 귀감이 돼왔다.

教育學科동창회 夏季총회盛了

師大 教育學科同窓會(회장 劉奉鎬)는 지난 7월16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92년도 하계총회를 개최했다.

劉회장과 李宗宰 모교교육학과장등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劉회장은 『동문들의 협조 덕택으로 지난 1학기 모교에 연구비와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동문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요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학과출신 국회의원 당선 동문인 楊淳稙, 李揆澤동문과 師大출신 총장 徐明源(경원대), 李榮德(명지대), 金蘭洙(광주대), 咸宗圭(한서대), 李相周(울산대)동문의 총장임명을 축하하는 순서도 함께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支部 안테나

現地유학생 망라 「서울大모임」 추진

서울大學校同窓會 샌프란시스코支部는 60년대 후반 몇몇 동문들의 송년모임을 모태로 시작됐다. 처음 몇해동안은 年末을 그냥 넘기기가 아쉬워 가진 부부동반 모임이 구전돼 그 수를 더해가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지역 동문회가 태동한 것이다.

美洲지역에서 하와이 다음으로 韓人들의 이민역사가 가장 오래된 샌프란시스코지역은 移民 20년이 훨씬 넘는 소위 「올드 타이머」들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곳이다.

지난 88년 南加州(LA지역 중심) 서울대학교동창회가 펴낸 「해외동문총람」에는 샌프란시스코지역 서울大人이 2백명이 수록돼 있는데, 현재는 약 5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本會 최주호회장이 美洲순방당시 동문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 마주보는 이가 임승쾌 샌프란시스코지부회장.

이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동창회 모임을 알리는 광고나 기사가 교포언론매체를 통해 나가면서 참여동문의 수가 불어난데 기인하는 것이다.

종전의 동창회모임이라면 연말파티가 가장 큰 모임이었고 그 모임에서 次期회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같은 모임의 양상은 지난 85년 徐聖植(69년 法大卒) 당시 한국외환은행 상항(桑港)지점장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변모를 꾀하기 시작했다. 즉 동창회에 골프회를 두고 매년 한두차례 「동문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어 86년 바톤을 넘겨받은 李相德(72년 齒大卒)회장대에 이르러서는 동창회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골프회 모임이외에도 타대학 출신과 함께 합동연말파티를 주선하는등 동창회 활동이 교포사회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會長團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연말총회겸 송년파티만 주선하면 「끝」이라는데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동창회는 87년도 회장단부터 임기를 최소한 2년으로 하자는 동문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해 전임 洪顯禹(61년 文理大卒)、서성식、이상억회장때부터 총무를 맡아왔던 林承快(70년 文理大卒·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편집국장)동문이 선임돼 현재까지 연6년을 會長직을 맡아 장족의 발전을 일구어냈다.

林회장은 87、88년 첫임기동안 동문들의 소재파악에 주력했는데, 자신이 언론에 몸담고 있어 동문들과의 연락이 수월했다고 한다.

同會는 88년 정기총회에서 林회장을 재추대하여 89、90년을 맡겼는데, 이시기는 샌프란시스코 서울大동창회 역사상 가장 기록될만한 분수령이었다고 한다.

89년 5월 당시 趙完圭모교총장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전 동문이 환영모임을 가졌으며, 이듬해 11월에는 本會 崔主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이곳을 방문, 支部활성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92년말까지 세번째 임기를 맞게된 林회장은 지금까지의 친목모임을 넘어서 모교발전과 동창회발전에 연계되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현회장단은 장학기금을 마련, 동문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연3·4회씩 개최되는 동문골프대회때마다 基金을 적립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案 등이 논의되고 있다.

5백여會員 보유한 모범支部

골프통해 奬學基金 마련계획

한편 샌프란시스코지역에는 스탠포드, UC、버클리、UC데이비스 등 명문대학이 즐비한데 이곳에 유학중인 모교출신 동문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지의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서울大모임」을 성대하게 갖기로 했는데, 모교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이들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각자의 분주한 日常을 영위하면서도 항시 「서울大人」임을 잊지않고 同門之情을 이어가고 있는 桑港支部의 모습에서 「參與 協力 榮光」의 동창회 指標가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政務1장관에 金宗鎬동문

◇金정무1장관

盧泰愚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政務1장관에 民自黨 金宗鎬(59년 法大卒)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金장관은 충북 槐山출신으로 내무부 주사로 출발, 忠北지사와 내무차관 장관을 거친 정통내무관료 출신으로 5共출범때 民正黨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4選을 기록하기까지 국회내무·예결위원장과 원내총무등을 두루 역임했다. 對人관계가 원만하며, 지난 民自 경선에서는 金泳三후보 추대위 총괄간사를 맡기도.

檢察고위직 人事단행

서울大人 대거榮轉

琪彦建介 대구고검장

在道 전대구고검장

全健 대전고검장

金光 주서울지검장

辛李 광주고검장

정부는 7월24일 全在琪(62년 法大卒) 서울지검장을 대구고검장에, 金道彦(63년卒) 부산지검장을 신설되는 대전고검장에, 辛建(63년卒) 대검중수부장을 광주고검장으로 승진발령 하는등 29일자로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공석중인 법무연수원장에 朴鍾喆(61년卒) 대구고검장이 전보 발령됐다. 한편 서울지검장에는 李健介(63년卒) 대검공안부장, 부산지검장에 鄭京植(65년 사법대학원卒) 대구지검장, 대구지검장에 鄭城鎭(63년卒) 법무부법무실장, 광주지검장에 魯勝行(63년卒) 청주지검장, 대전지검장에 金鍾求(63년卒) 법무부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되는등 전국 12개 지검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이들 모두가 동문들이다.

또 大檢의 중추인 중수부장과 공안부장엔 宋宗義(64년卒) 대전지검장과 卞在日(63년卒) 수원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는 또 金泰政(64년卒) 서울지검동부지청장,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장과 부산지검동부지청장 등 모두 6명을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金대전고검장

◇全대구고검장

◇李서울지검장

◇辛광주고검장

국민은행장

李圭澄 鄭承宰

◇李국민은행장

◇鄭전북은행장

정부는 지난 7월30일 李圭澄동문(59년 文理大卒)을 국민은행 행장에 임명했다.

신임 李행장은 32년 서울출신으로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국민은행에 入行, 30여년을 국민은행에 봉직해 왔다. 중앙청지점장과 자금부장, 인력관리부장을 거쳐 88년부터 부행장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지난 7월4일 열린 全北은행 임시주총에서는 鄭承宰동문(55년 商大卒)이 행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鄭행장은 32년 전주출생으로 모교 상학과 졸업후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이후 한국외환은행 뉴욕지점장과 동남아본부장을 거쳐 加州한국외환은행장을 지냈다.

— 同門 諸位께 —

최근 商大67학번 李基善이라 사칭하며 高價의 CD등을 強賣하는 사례가 있어 心的·物的 피해를 입는 동문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를 접하는 동문께서는 현혹되시지 말고 바로 商大동창회(753—2277)로 연락바랍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 173호

日本은 아시아의 覇權을 추구하는가?

時論

韓半島 종속화정책 날로 可視化

PKO法案 통과로 再武裝토대 다져

慎鏞廈
[61년 文理大卒 모교社會大교수]

올해 1992년을 전후하여 역사적 의미의 世界體制의 大改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 한국민족은 우리시대의 이 새로운 세계체제 대개편이란 토인비식 개념의 도전에 대하여 얼마나 능동적으로 기민하고 적절히 응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민족·국가의 진로와 명운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92년) 6월 15일 일본 중의원을 최종 통과하여 6월 19일 공포된 일본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통칭 PKO협력법)을 일본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법제정이라고 소박하게 피상적으로만 관찰해서는 안될 측면이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한국도 PKO에 참가하려 하면서 일본의 PKO참가에는 관대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PKO참가와 한국의 PKO참가는 동기와 목표가 매우 다를 것이다.

일본에서 PKO협력법안을 실제로 입안하고 추진한 중핵단체는 일본자민당내의 「國際社會에서의 日本의 役割에 관한 特別調査會(회장 小澤一郎 자민당 전간사장)이다. 이 오자와 특별조사회가 지난 91년 9월 13일 PKO협력법안을 일본 내각총리에게 제출하면서 발표한 그 動機의 설명 내용을 그들의 말 그대로 함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서 냉전 종결 이후의 세계는 선진 7개국이 결정적으로 주도하면서 ①미국圈 ②유럽공동체圈(EC圈) ③日本圈의 3극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2) 일본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國際社會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政治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舊敵國 조항을 삭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일본은 UN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되어야 한다.

(5) UN평화유지군(PKF)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多國籍軍 및 UN軍에의 자위대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

(6) 현행 자위대법과 「방위계획대강」도 이 목적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7) 일본의 再武裝과 海外派兵을 금지한다고 하는 현행 憲法 제9조의 해석도 수정해야 한다.

(8) 일본은 아시아의 地域的 統合에서 指導力을 발휘해야 한다.

(9) 미·일안보조약도 미국에 치우친 일방적 체제로부터 일본의 役割分擔을 증강시킨 쌍방적 체제로 수정해야 한다.

(10) 현행 헌법의 제약하에서도 「협력대」라는 이름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자위대 해외파병은 가능하다.

□아시아의 日本圈化

여기서 특히 (1)(2)(4)(5)(8)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올해부터 본격화한 세계체제 대개편에 보조를 맞추어 「아시아의 地域的 統合」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日本圈을 만들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PKO협력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아시아의 地域的 統合에 의한 日本圈이란 무엇인가? 즉 이것은 日本이 아시아의 覇權國家가 됨을 의미한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된 이래 지난 약 10년간 國家의 進路와 전략을 놓고 두 편으로 나뉘어져 각 부문에서 논쟁을 벌여왔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한 편은 평화헌법을 지켜 경제대국으로서 만족하고 국제정치와 군사에서는 남의 나라일에 간섭치 않음편서 현상태로 일본 국민들끼리 잘 살자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경제대국에 걸맞도록 국제정치대국과 군사대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強大國의 役割을 수행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번 일본 PKO협력법 통과와 관련는 후자의 주장이 승리하여 47년간 지켜온 일본헌법 제9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強大國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를 日本圈으로 만들기로 21세기의 일본의 國家進路와 전략을 확정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일본역사는 1992년을 자기들의 새로운 전환의 해로 기록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小澤一郎회장과 「유엔 캄보디아 임시행정기군」 의장인 明石康씨는 아시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파병 후보지역으로 ①캄보디아 ②미얀마 ③카슈미르 ④韓半島 등을 들었다. 明石康의장은 앞으로 증가될 유엔평화유지군에 참가할 파병자위대의 훈련을 위해 오끼나와에 기지를 창설할 것을 일본내각총리에게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일본이 PKO법안을 제출하면서 스스로 밝힌 「아시아의 地域的 統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명확치 않지만, 그 대상에 韓國·韓半島가 포함되어 있음은 여기서도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전환된 韓半島정책

일본의 PKO협력법 공포를 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환된 일본의 對한국·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을 중에서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세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아시아 覇權 장악 정책이다. 일본측 자신이 「아시아의 地域的 統合」을 말하고 그 指導力 운운하고 있으며, 日本圈 운운하고 있으니, 일본은 논란의 여지없이 아시아의 覇權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내용의 첫째가 아시아를 일본의 經濟圈과 市場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곧 명백하게 될 것이다. 추정컨대, 이 지역에 경제와 함께 일본의 文化的 浸透를 자행하고, 일본을 軍事大國化하여 필요하면 아시아 각 분쟁지역에 파병하면서 政治的 외교적 패권도 장악하여 아시아를 日本圈으로 만들어 지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가, 국제경찰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관찰된다. 여기에는 물론 韓國·韓半島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南北統一 원치않아

둘째, 일본의 한국·한반도에 대한 從屬化 정책이다. 일본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또는 추월하여 일본의 경쟁국가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한반도의 종속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관찰된다.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한국을 從屬化시켜 버려야 아시아 내부에서 경쟁국가 대두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경제적 침략을 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국경제를 일본에 의존시켜 經濟的 從屬化를 달성하고,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국경을 없애 하여」(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의 말) 文化的 從屬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政治的 외교的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이 軍事大國化하여 핵무장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 종속은 위압적으로 가중될 것이며, 새로운 集團安保體制 창설의 미명하에 軍事的 從屬도 문제가 대두될지 모른다.

셋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南北分斷固着化 정책이다. 일본은 한국이 統一되면 통일한국은 곧 일본을 따라잡는 最先進 強大國이 되어 일본의 아시아 패권정책을 저지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경쟁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저지하고 韓半島에 「分割과 統制」(divide and control) 정책을 적용하여 한반도의 南北分斷을 最大限 長期化하고 固着化시키려고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일본의 최선의 국익과 일치한다」(竹村健一씨의 강연논문)는 것이 일본측의 지배적인 생각이고 정책방침이다. 일본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한반도 문제에 대한 4+2 정책」이라는 것도 한반도분단 고착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軍事大國化 위험성에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급속한 국방비 증강

현재 전세계가 급속한 감군·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있는데, 일본만은 역방향으로 급속한 군비증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86년부터 90년까지 「中期방위력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미국·소련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급속한 군축 대추세에 역행하면서 91년부터 95년말까지 「新中期방위력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3백50억불 이상씩 투입하여 더욱 급속히 軍事大國化하려 하고 있다. 연 3백50억불의 일본의 국방예산은 일본이 지역적 통합을 노리는 동남아지역 및 동북아지역 모든 나라들의 국방예산총계와 맞먹는 것이다(한국 약 85억불, 북한 42억불, 중국 66억불, 대만 76억불, 태국 18억불, 인도네시아 16억불, 말레이지아 13억불, 필리핀 9억불, 싱가폴 8억불 : 총계 약 3백 33억불). 「新中期 방위력 정비사업」이 끝나는 96년에는 일본은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위의 軍事大國이 된다. 이 막강한 군사력이 일본열도를 지키기만 하려는 자위용이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용임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壬辰倭亂 4백주년

올해는 임진왜란 4백주년을 맞는 해이다. 일본에게 침략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의 아시아 패권장악 정책, 한국·한반도 종속화 정책, 한반도 남북 분단고착화 정책의 위험성과 일본의 軍事大國化의 위험성에 대하여 특히 예민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14代 理事명단 〈下〉

商科大學

▲簡榮錫=지역난방공사이사
▲康京洙=안국화재부사장
▲姜景彦=럭키금성상사상무
▲康南彦=안건회계법인대표
▲姜東奭=국민銀성북본부장
▲康伯榮=태원물산사장
▲姜輔遠=외환銀소공지점장
▲姜錫權=동남투자자문사장
▲姜洙憲=대동벽지사장
▲姜信重=신한은행상무
▲姜泳哲=前삼천리기계대표
▲姜晋佑=(주)롯데햄우유사장
▲桂忠武=석유공사부사장
▲高光直=前전북은행장
▲萬政雄=대림산업이사
▲高炳佑=증권거래소이사장
▲高永鎬=대전대교수
▲高俊漢=고려아연사장
▲高學模=대주무역사장
▲公正坤=동양나이론사장
▲郭秀一=서울대교수
▲具石謨=경제연구원부원장
▲丘廷煥=상운회계대표
▲權東洙=한국주택은행감사
▲權甫相=대우투금전무
▲權寧達=금융결제원상무
▲權寧大=오리엔트해운대표
▲權寧斗=유원무역사장
▲權寧旭=선경투자자문사장
▲權五均=국민대교수
▲權五浚=대우정밀공업사장
▲權五學=(주)한양전무
▲權鍾善=야쿠르트유업전무
▲權泰鳴=동아출판(주)부사장
▲權泰雄=금성하나웰(주)상무
▲權泰元=신보리스(주)회장
▲權泰仁=前기술개발公감사
▲權赫台=前풍만제지부사장
▲權熙球=주택은행기획부장
▲權羲宅=(주)안동버스사장
▲金 洸=(주)럭키금성전무
▲金 澤=수출입은행이사
▲金 勳=중부국세청국장
▲金甲洙=진화상사대표
▲金健雄=태기인터내셔날
▲金慶顯=대동철강회장
▲金光淵=삼양석유전무
▲金光照=세계물산전무
▲金圭奭=신탁은행상무
▲金基錫=오양수산사장
▲金基中=(주)경방전무
▲金基弘=신성기업회장
▲金大榮=쌍룡양회부사장
▲金德基=펜타한공사장
▲金德基=근화제약대표
▲金道昇=한림통상대표
▲金東喆=제일은행저축부장
▲金東漢=신풍건설산업사장
▲金斗山=한국유리상무
▲金明俊=장기신용은행이사
▲金明浩=신용보증이사장
▲金文鉉=대일제지사장
▲金方淵=태광산업상무
▲金芳芝=삼덕회계법인대표
▲金奉圭=중소기업銀부행장
▲金相燮=현대종합상사상무
▲金相濬=우성산업전무
▲金思澈=(주)풍산감사
▲金相燦=(주)태흥회장
▲金相勳=파스퇴르유업사장
▲金奭煥=(주)댕우기계상무
▲金相均=한국감정원지점장
▲金宣中=진로그룹기조실장
▲金成圭=경남모직공업사장
▲金盛斗=세방전지전무이사
▲金聖柱=경기신용금고대표
▲金松鶴=산동회계법인고문
▲金順寶=삼양통운사장
▲金承萬=(주)장자부사장
▲金昇政=유공해운부사장
▲金新正=前두산전자부회장
▲金然培=제일증권이사
▲金英萬=국제화재부사장
▲金榮敏=한국화약상무
▲金永錫=신탁은행전무
▲金榮石=교육보험부회장
▲金榮洙=강원교원연수원장
▲金榮壽=부국제강대표
▲金榮柱=(주)삼화회장
▲金永燦=前경안신용회장
▲金永鎬=화림통상대표
▲金榮浩=삼호주택부사장
▲金榮煥=한국전열화학회장
▲金完洙=국제종금부사장
▲金完植=(주)샘표식품고문
▲金龍起=대구리스사장
▲金容燮=진양화학부회장
▲金龍澤=금강기획국제이사
▲金龍堯=서울신탁은행감사
▲金優年=삼익악기전무
▲金昱漢=(주)댕우기조실전무
▲金鎬泰=대우조선공업전무
▲金雄世=롯데월드사장
▲金弘九=동산토건이사
▲金基弘=신성기업회장
▲金元吉=국회의원
▲金洪殷=전남방직사장
▲金大榮=쌍룡양회부사장
▲金源泰=한국은행검사역
▲羅基成=경동산업부사장
▲金德基=펜타한공사장
▲金元鎬=에주투어관광회장
▲羅公默=코오롱유화대표
▲金德基=근화제약대표
▲金允基=한진해운상무
▲南 鏞=럭키금성그룹이사
▲金道昇=한림통상대표
▲金允在=태창사장
▲南國彦=범양상선이사
▲金東喆=제일은행저축부장
▲南宮燦=두산유리사장
▲金潤宰=한국안전유리사장
▲南宮燦=두산유리사장
▲金東漢=신풍건설산업사장
▲南大祐=신용보증기금전무
▲金允澤=영창인물공장사장
▲南相白=경수투자금융대표
▲金斗山=한국유리상무
▲金允煥=고려검정사장
▲南正祐=삼성종합건설사장
▲金明俊=장기신용은행이사
▲金應祚=동광통산부사장
▲盧成泰=제일경제연구소장
▲金明浩=신용보증이사장
▲金在潤=신한은행부행장
▲盧榮久=산업은행부총재보
▲金文鉉=대일제지사장
▲金在哲=삼신액탄(주)사장
▲盧仁煥=국회의원
▲金方淵=태광산업상무
▲金在亨=한미은행이사
▲盧載承=변호사
▲金芳芝=삼덕회계법인대표
▲金正基=企銀동대문지점장
▲盧俊鎔=동부그룹이사
▲金奉圭=중소기업銀부행장
▲金正淳=(주)신영전무
▲盧昌熹=외무부차관
▲金相燦=현대종합상사상무
▲金正銀=오라관광호텔사장
▲明東根=명성건업회장
▲金相濬=우성산업전무
▲金正泰=한신개발금융사장
▲孟鎭成=신보창업투자감사
▲金思澈=(주)풍산감사
▲金相燦=(주)태흥회장
▲金種國=두산산업상무
▲文 槿=서울방송감사
▲金相勳=파스퇴르유업사장
▲金鍾大=대전피혁회장
▲文康民=남영나이론사장
▲金奭煥=(주)댕우기조실상무
▲金鍾惠=제일은행상무
▲文孔訓=문영실업사장
▲金相均=한국감정원지점장
▲金鍾瑞=세보기계사장
▲文大遠=코리아제록스사장
▲金宣中=진로그룹기조실장
▲金鍾淳=명지대대학원장
▲文勝永=동산토건부사장
▲金成圭=경남모직공업사장
▲金鍾昱=전방(주)부회장
▲文彥錫=(주)일화사장
▲金盛斗=세방전지전무이사
▲金鍾暢=서울지방국세청장
▲文哲漢=강원대경영대교수
▲金聖柱=경기신용금고대표
▲金鍾哲=한국자동차부품
▲文胎甲=체육진흥公이사장
▲金松鶴=산동회계법인고문
▲金琮鎬=한일리스이사
▲文鎭錫=연합물산사장
▲金順寶=삼양통운사장
▲金朱洙=생산성본부상무
▲閔庚輝=산업연구원부원장
▲金承萬=(주)장자부사장
▲金峻經=두산산업사장
▲閔丙潤=기술개발공사감사
▲金昇政=유공해운부사장
▲金重壽=진흥기업고문
▲閔丙快=조흥증권부사장
▲金新正=前두산전자부회장
▲金志貞=고려당대표
▲閔相基=서울대교수
▲金然培=제일증권이사
▲金鎭琪=삼성전자상무이사
▲閔昌基=장은창업투자사장
▲金英萬=국제화재부사장
▲金辰在=세반섬유사장
▲閔海榮=기술신용보증기금
▲金榮敏=한국화약상무
▲金鎭珠=포항특수석판대표
▲朴家慶=금강종합건설회장
▲金永錫=신탁은행전무
▲金珍浩=항도투자금융사장
▲朴建豪=쌍룡중공업상무
▲金英錫=前조흥은행장
▲金昌男=카나다은행지점장
▲朴景輝=동화은행상무
▲金榮石=교육보험부회장
▲金昌達=한국기술개발대표
▲朴廣作=섬균관대교수
▲金榮洙=강원교원연수원장
▲金昌洙=포스트디자인테크
▲朴光普=삼미특수강부회장
▲金榮壽=부국제강대표
▲金採謙=국회의원
▲朴光七=영신교역사장
▲金榮柱=(주)삼화회장
▲金天鈺=국제이화공업사장
▲朴光華=경일신용금고사장
▲金永燦=前경안신용회장
▲金脊植=계몽사부회장
▲朴基能=서진특수강대표
▲金永鎬=화림통상대표
▲金忠煥=한울종합금융
▲朴大源=조흥銀도화지점장
▲金榮浩=삼호주택부사장
▲金忠煥=한국전자상무이사
▲朴大平=대신개발금융이사
▲金榮煥=한국전열화학회장
▲金泰球=대우자동차사장
▲朴東遠=한일銀사당지점장
▲金榮洙=국제종금부사장
▲金泰斗=조흥은행전무
▲朴斗根=경일화학대표
▲金完植=(주)샘표식품고문
▲金宅烈=풍림농산 대표
▲朴斗杓=대유증권상무
▲金龍起=대구리스사장
▲金恒德=(주)유공사장
▲朴萬玉=조흥은행이사
▲金容燮=진양화학부회장
▲金炫植=동아출판사사장
▲朴明圭=한일증권회장
▲金龍堯=서울신탁은행감사
▲金洞萬=前상호금고사장
▲朴明植=한국컴퓨터부사장
▲金優年=삼익악기전무
▲金炯英=경남은행장
▲朴炳烈=신영증권사장
▲朴炳駿=강원산업사장
▲金秉桂=동아제분(주)상무
▲朴相殷=리스산업협회장
▲朴聖麒=한국바인딩(주)사장
▲朴成錫=한라자원(주)대표
▲朴壽基=제일정기(주)사장
▲朴秀煥=럭키금속(주)사장
▲朴承五=국민대교수
▲朴勝日=한국코닥(주)회장
▲朴泳求=제일제당(주)부사장
▲朴榮福=(주)우빈사장
▲朴榮祐=(주)금산양행회장
▲朴榮遠=(주)삼미상무
▲朴英珠=이건산업(주)사장
▲朴宇熙=서울대교수
▲朴旭圭=한라그룹고문
▲朴熊緖=삼성석유부사장
▲朴源培=한양화학(주)사장
▲朴允錫=前안성유리전무
▲朴仁植=동원산업상무
▲朴任遠=(주)유성사장
▲朴在潤=서울대교수
▲朴正植=동일레나운전무
▲朴正龍=동양투자자문사장
▲朴鍾根=前대경컴퓨터회장
▲朴宗基=한미상사사장
▲朴鍾台=비씨카드전무
▲朴宗漢=단국대교수
▲朴鎭旭=한국개발리스이사
▲朴賞文=금융결재원장
▲朴燦鍾=국회의원
▲朴賞弘=(주)한국철구사장
▲朴昌夔=한국개발리스상무
▲朴昌培=한국증권거래소
▲朴泰榮=국회의원
▲朴憲斗=대동기어(주)사장
▲裵茂基=서울대기획실장
▲裵信漢=(주)오리콤고문
▲裵桂元=아신해운(주)대표
▲白承祚=조흥증권사장
▲白龍基=중앙투신부사장
▲白昌基=미원식품(주)상무
▲白昌基=인천제철(주)부사장
▲白學遵=동양철관(주)부사장
▲徐 幸=코오롱상사부사장
▲徐基源=한국방송공사사장
▲徐承遠=코오롱건설부사장
▲徐榮澤=건설부장관
▲徐正甫=(주)유공상무
▲徐桂成=양산전문대학장
▲徐振錫=(주)화성실업사장
▲徐泰植=삼일회계법인회장
▲石致觀=대유화학(주)사장
▲石學鎭=코오롱건설사장
▲成旭基=충청은행장
▲成俊慶=前한미은행전무
▲成夏鉉=(주)삼희기획사장
▲蘇在洙=향진기획대표
▲孫建來=한국自保사장
▲孫吉丞=선경합섬기획실장
▲孫東皓=조흥은행감사
▲孫炳斗=동서경제研사장
▲孫尙模=동부제강회장
▲孫錫來=前대한교보전무
▲孫貞杉=동아제약사장
▲宋奎鉉=국민은행조사역
▲宋基台=삼도물산상임고문
▲宋吉憲=신한생명보험사장
▲宋達鎬=국민銀대구본부장
▲宋文鎬=하남석유(주)부사장
▲宋炳洛=서울대교수
▲宋三錫=(주)모나미대표
▲宋仁相=동양나이론회장
▲宋在熙=한국분말야금(주)
▲宋宙植=한국볼트공업회장
▲宋軫鎬=송은무역(주)사장
▲申東鎬=KBS홍보실장
▲申明秀=동방유량(주)회장
▲申明浩=진주내화(주)대표
▲申錫休=인일합동회계대표
▲申世吉=삼성물산(주)사장
▲愼侑根=서울대교수
▲申鍾祐=부국증권사장
▲申泰煥=前서울대총장
▲申鉉碩=신한은행전무
▲申熙澈=금강제화(주)부회장
▲沈大平=대통령행정비서관
▲沈遠澤=오류농장(주)회장
▲沈載善=태산신용금고사장
▲沈載錫=장기신용은행전무
▲沈載榮=롯데기공(주)사장
▲安基鳳=강원산업(주)부사장
▲安東鎭=(주)세종금속회장
▲安秉國=선창산업(주)상무
▲安孝喆=국민은행이사장
▲安永信=조흥증권(주)전무
▲安惠珍=기업은행부행장보
▲安熙重=극동정유(주)상무
▲梁昇鉉=(주)경방고문
▲魚 準=서경통상(주)사장
▲嚴鎰永=동서투자부회장
▲吳德均=충남대총장
▲吳丙和=건영창업투자(주)
▲吳世鍾=장기신용은행상무
▲吳寓鉉=중앙투자신탁사장
▲吳馹煥=한일증권상무
▲吳章煥=중앙엽색부사장
▲吳準熙=코오롱제약(주)사장
▲吳漢九=前국회의원
▲禹贊穆=조흥은행상무
▲元國喜=신영증권(주)회장
▲元武鉉=효성물산(주)사장
▲元容勳=대림통상(주)사장
▲元昌喜=세우산업(주)대표
▲元漢榮=두산창업투자사장
▲元虎出=동창회대구지부장
▲魏啓伸=교보문고외서이사
▲柳東吉=숭실대교수
▲柳明集=유신교역(주)사장
▲柳文熙=한국기업리스사장
▲俞炳憲=한불종합금융
▲柳錫基=태광산업(주)전무
▲俞英一=해태상사(주)사장
▲李元基=이원기회계대표
▲柳遠榮=한국전자(주)회장
▲李寅鎭=남해상사(주)사장
▲李一薰=동부창업투자사장
▲李在夢=황금문수(주)사장
▲李載雨=조선맥주(주)부사장
▲李在鎭=경남리스(주)회장
▲李全培=전원산업(주)사장
▲李晶圭=세창물산(주)사장
▲李正達=한국개발리스상무
▲李正馥=정풍상사(주)사장
▲李鍾珏=대한제분(주)회장
▲李鍾國=동승흥산(주)사장
▲李鍾基=중앙일보부회장
▲李鍾憲=前로터리편집인
▲李鍾凡=동산토건(주)부사장
▲李宗秀=(주)선경전무
▲李鍾衍=조흥은행장
▲李鍾寅=쌍용중공업부사장
▲李鍾憲=덕인양행사장
▲李俊容=동아제분(주)사장
▲李重灌=(주)태화사장
▲李鎭高=청와대경제수석
▲李鎭洙=삼영창업투자사장
▲李昶洙=금융결제원고문
▲李昌雄=화남상사사장
▲李昌一=(주)대왕사장
▲李埰得=선창산업(주)사장
▲李喆洙=제일은행전무
▲李春茂=고려합섬(주)고문
▲李泰承=前강원은행장
▲李泰辰=강원산업(주)감사
▲李泰衡=민자당정책조정실
▲李判永=신보창업투자고문
▲李弼坤=삼성물산부회장
▲李翰烈=주택銀호남본부장
▲李漢燮=한전제주지사장
▲李海旭=한전제주지사장
▲李賢宰=정신문화연구원장
▲李鎬裕=(주)현대실업사장
▲李華泰=아세아투자사장
▲林東昇=삼성경제연구소장
▲林炳斌=前미주신용이사
▲林秉泰=태평양물산(주)사장
▲林丞俸=한국타이어(주)전무
▲林在琇=한신경제研사장
▲林采桂=국세청조사차장
▲張基八=한일은행상무
▲張基興=고성건흥(주)부회장
▲張東勳=손해보험협회전무
▲張滿花=서울신탁은행상무
▲張明燮=경수투자금융이사
▲張武雄=(주)미화당부회장
▲張錫靖=동자부기획실장
▲張善範=(주)동일심지사장
▲張世元=前동양섬유사장
▲張英俊=관동대교수
▲張炳琇=현대중공업전무
▲張潤相=내장산호텔사장
▲張學鎭=세정회계사무소장
▲張炫圭=前수출입은행감사
▲田永秀=前한국주택은행장
▲全榮完=前손해보험協상무
▲全永孝=KBS문화사업단
▲全禮鎔=뉴내자호텔회장
▲錢章源=경남기업(주)전무
▲全綎九=변호사
▲全昌基=유유산업부사장
▲全昌秀=한일개발(주)사장
▲全河吉=前한국감정원상무
▲鄭基完=(주)대상사장
▲鄭斗采=아시아自공장장
▲鄭丙壽=성균관대교수
▲鄭福榮=한성기업(주)사장
▲鄭韶永=생명보험협회회장
▲鄭允泳=영진실업(주)회장
▲鄭仁教=조흥은행연건점장
▲鄭仁植=대림산업(주)부사장
▲鄭鍾瑞=대우철강(주)전무
▲鄭周炳=새한섬유(주)사장
▲鄭周浩=대우전자(주)전무
▲鄭仲杞=국민카드부사장
▲鄭埈鎬=서울건재판매회장
▲鄭燦晙=대유상운(주)사장
▲鄭鎬湧=동양시멘트부사장
▲鄭熙永=선진종합(주)사장
▲趙 淳=한국은행총재
▲趙 碩=선일포도당부회장
▲趙 喆=제일합섬(주)회장
▲趙 源=중부지방국세청장
▲曺甲周=신송식품(주)사장
▲曺京植=前농림수산부장관
▲趙繼基=前화풍실업부사장
▲趙德讚=신한회계법인대표
▲趙一一=조흥은행전산부장
▲趙頃庚=국민투신부사장
▲趙容燮=한국산업리스회장
▲趙元基=두이회계사무소
▲趙太濬=수석농산(주)사장
▲趙澤九=효신콘크리트전무
▲趙澤英=현대투자자문사장
▲朱英和=前산업기업(주)사장
▲朱仁基=동양화재보험사장
▲池治本=충청은행상무
▲陳 稔=동력자원부장관
▲秦成周=(주)한진전무
▲陳炯東=쌍용그룹사장
▲蔡炳允=조흥은행상무
▲蔡梧秉=제일모직부사장
▲千京玉=농협중앙회부회장
▲崔 喆=효신콘크리트회장
▲崔暻國=대신증권사장
▲崔景南=前한성투금전무
▲崔京鐸=동서식품(주)부사장
▲崔圭元=금호섬유화학(주)사장
▲崔圭燮=무학주정(주)사장
▲崔南植=현대정공(주)전무
▲崔銘杰=(주)대우부회장
▲崔明奎=대전투금(주)사장
▲崔明在=파스퇴르유업회장
▲崔丙恒=쌍용컴퓨터(주)사장
▲崔興喆=코오롱유산(주)사장
▲崔聲斗=문화일보편집국장
▲崔成來=삼성비서실전무
▲崔洙秉=공정거래위원장
▲崔秀逸=현대중공업(주)사장
▲崔然宗=한국은행이사
▲崔榮二=대림산업(주)전무
▲崔榮喆=금동섬유(주)전무
▲崔正浩=(주)대우부사장
▲崔鍾元=현대해상보험전무
▲崔浚喆=동양물류(주)상무
▲崔鎭宅=동서식품(주)전무
▲崔昌杰=고려인연(주)부회장
▲崔夏植=동아제약(주)이사
▲崔海殷=대림통상(주)전무
▲崔瑋煥=대우증권(주)부사장
▲河鴻泰=원미섬유(주)사장
▲河進五=쌍용투자증권사장
▲河基桂=(주)코오롱사장
▲河基成=(주)일신산업실장
▲太元錫=서원교역(주)사장
▲秋世煥=쌍룡증권(주)고문
▲韓基徹=(주)코스코보험사장
▲韓炳注=동국제강(주)전무
▲韓相憲=삼표산업(주)사장
▲韓相現=세방여행사부회장
▲韓秀吉=롯데제과(주)전무
▲韓英國=롯데제과상임감사
▲韓在鳳=한국기술개발전무
▲韓讚洙=대림수산(주)전무
▲韓喆煥=한일은행조사부장
▲許 洪=한일은행상무이사
▲許南珏=삼양통상(주)회장
▲許萬貴=새한종합금융사장
▲許丙夏=우신시스템(주)사장
▲許盛吉=前법양상선전무
▲許盛鏞=상산소재(주)대표
▲玄海洙=삼덕상사(주)전무
▲許官義=동부건설(주)사장
▲許國泰=한국문화사장
▲洪南出=前경남제지(주)사장
▲洪東震=동일제선(주)회장
▲洪斗杓=현대자동차(주)전무
▲洪勉厚=前대우중공업고문
▲洪文信=한국감정원원장
▲洪思穆=남서울관세사대표
▲洪舜基=남양어망(주)회장
▲洪性雄=국토개발硏부원장
▲洪勝候=한진중공업부사장
▲洪升熹=외환은행동우회장
▲洪榮宗=조선내화(주)이사
▲洪在瑛=서암창업투자사장
▲洪恩基=동양증권(주)부회장
▲洪在馨=한국외환은행장
▲黃珞周=국회부회장
▲黃秉泰=前국회의원
▲黃元五=조폐공사상임위원
▲黃昌基=은행감독원원장
▲黃彰淵=삼일회계법인대표
▲黃昌學=(주)한진사장

獸醫科大學

▶千炳福 ▶千炳福 ▶千炳福

▶申在孝▶李參惠▶李鍾雨▶李鍾雨▶李鍾雨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 173호

弔辭

爲國忠節 불탔던 私學의 큰별

故 俞尙根박사의 靈前에

오늘 우리는 戰爭의 폐허위에서 이나라 장래를 걱정하여 1956年 明知學園을 建立하신 俞尙根 名譽總長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時代가 要求하는 私學의 큰 별 俞尙根博士께서 幽明을 달리함에 있어 슬픔과 衝擊으로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분의 經倫과 指導力이 어느때 보다 切實한 이때 完熟한 경지에 이른 七旬의 나이에 할 일 많은 明知를 뒤에 두고 떠나버리신 俞博士의 空虛한 빈자리를 채울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더하지만 우리는 悲痛과 落望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建學精神은 지금 더 생생하고 또 당신의 고매한 人格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先生께서는 민족의 分斷이 가져오는 悲劇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꼈던 분입니다. 未曾有의 파괴와 살육이 벌어졌던 6.25動亂을 몸소 體驗하여 이땅에 다시는 戰爭이 없어야한다는 平和統一에 대한 불타는 念願을 가지고 奉仕하셨습니다. 統一院長官으로 俞博士의 熱情은 바로 「平和奉仕」의 精神을 實踐한 愛國人이었습니다.

先生께서 얼마나 모든 일에 誠心誠意를 다하셨던 분이었던가를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길에서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一部學生의 잘못된 政治理念鬪爭에 결연히 對處하셨던 信念에 찬 意志의 大學經營人이었습니다. 당신은 비록 少數이지만 大學에 남아있던 極左이데올로기·思想에 개탄하였던 철저한 自由民主主義의 信奉者이며 反共産獨裁隊列에 앞장섰던 勇氣있는 指導者였습니다.

선생께서는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으나 우리는 先生의 敎育哲學과 先生의 救國精神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털어 놓지 못했다하여 우리들이 先生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俞博士와 마지막 헤어지는 永訣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永遠히 사라지지 않는 俞博士의 爲國忠節을 顯揚하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苦痛과 煩惱가 없는 天國에서 이나라와 우리 敎育의 무궁한 發展을 위해 기리 살펴주소서. 先生께서 못다이룬 꿈은 後學의 손으로 成就될 것입니다.

1992. 7. 28

敎育部長官 趙完圭

同門을 찾아서

한글과 컴퓨터 李燦振 대표

한국형SW 代名辭 「한글」워드 開發주역

쉰덩어리와 반도체의 집합체에 불과한 컴퓨터에 魂과 生命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소프트웨어(SW)의 개발이다.

발분의 노력과 기량로 향후 이분야를 주도해 나갈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는 「무서운 20代」의 최선봉에 서있는 서울大人 李燦振(89년 工大卒·한글과 컴퓨터代表). 그를 가리켜 흔히들 「韓國의 빌게이츠」라는 표현을 주저않을 만큼 그가 개발한 한국형 소프트웨어의 대명사 「한글」워프로세서(WP)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母校컴퓨터연구회 창립멤버인 李燦振이 동료(김형중·우원식)들과 지난 89년 개발한 문서편집용 「한글 1.0」은 발매 1년만에 국내 WP시장을 거의 석권했다. 탁월한 호환성과 뛰어난 기능으로 기존 20여종의 WP용 SW를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든 「한글」은 그후 개량을 거듭하여 현재는 상용자들이 입력한 내용이 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에 어긋났을 때 이를 스스로 정정해주고, 활자의 크기와 서체가 일반 출판용 사식기만큼 다양한 「한글 2.0」프로그램을 완성,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다.

『SW개발은 타분야에 비해 개인의 역량이 한껏 표출될 수 있어 성취욕 또한 이에 비례한다』고 말하는 李燦振은 『아마도 일반회사에 취직해 누가 시킨일이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컴퓨터라는 것은 독구일 뿐이지, 요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컴퓨터에 관한 道德論」을 잊지 않는다.

李道卿(63년 農大卒·우석장학회장) 동문의 외아들이기도 한 그는 삼부실에서의 숙식을 예사로 여길만큼 일에 심취해 있는데, 『미친놈 좋아하는 일을 業으로 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젊은 서울大人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金庚勳기자〉

컴퓨터 名醫 安哲秀 동문

컴퓨터바이러스 治療의 大家로 명성떨쳐

安哲秀동문(86년 醫大卒·국군의무사령부 의무관)은 컴퓨터를 안는 사람을 사이에선는 「컴퓨터 의사」로 통한다.

작년 2월 모교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인 그는 非專攻분야인 컴퓨터바이러스에 관해 독보적위치를 굳힌 인물이다.

88년, 자신의 디스켓이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국내최초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치료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때마다 치료법을 보강해 왔는데, 89년 백신2 및 백신2 플러스, 90년 백신3 버전 95를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1백1종의 바이러스를 진단·치료하는 백신3 버전 01을 발표했다.

安동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사용자 거의 모두에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이를 무료로 보급해 왔다.

한마디로 『컴퓨터마인드의 저변확대를 위해선』라고 설명하는 安동문은 또 컴퓨터바이러스를 일반에게 바르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된다면 강연회나 원고집필도 결코 마다않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90년 한국컴퓨터기술협회로부터 받은 「올해의 인물상」과 올 6월 정보문화센터로부터 받은 「정보문화기술상」은 그의 이 분야에 대한 공로가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軍입대전 단국대 전임강사로 재직했던 安동문은 제대후에는 本業인 의사로 복귀, 전공인 생리화의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물론 전공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컴퓨터연구도 쉬지 않을 작정이다.

부산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부친이 모교 의대동문이며(安永謨동문·57년 醫大卒), 역시 의대동문인 부인 金美暻씨(87년 醫大卒)와 동문 二家를 이루고 있다. 〈洪慶華기자〉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환남연군(齒大在學中)·이지현양=8월9일 12시30분。
*양기식군(90년 人文大卒)·최수미양=8월16일 12시。
*김영국군(86년 經營大卒)·정수희양=8월16일 1시30분。
*최원욱군·주은정양(89년 醫大卒)=8월22일 1시。
*최영규군(87년 社會大卒)·박정희양=8월22일 2시30분。
*오희수군(87년 大學院卒)·차정화양=8월22일 4시。
*김영대군(82년 工大卒)·김효정양=8월23일 12시30분。
*박범철군(90년 保健大學院卒)·곽봉주양=8월23일 2시。
*최동철군(87년 音大卒)·여경옥양=8월29일 11시。
*곽성민군(85년 大學院卒)·김경란양=8월29일 12시30분。
*조원희군(89년 工大卒)·채보춘양=8월29일 2시。
*이상조군(88년 社會大卒)·한윤옥양=8월29일 3시30분。
*김선우군(89년 工大卒)·신은주양=8월30일 11시。
*유영복군(89년 法大卒)·전정희양=8월30일 1시。
*신홍순군(91년 社會大卒)·이지영양=8월30일 2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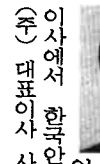
尹晟洙(84년 醫大卒)=7월16일 美텍사스대학교부설 앤더슨 암센타에서 2년간 연수차 출국。

▲**權九勳**(87년 社會大卒)=최근 美하바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I.M.F 세계은행 모스크바에 근무중。

▲**成明宰**(87년 社會大卒)=최근 美위스콘신大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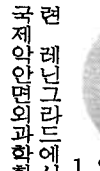
書 「한국교육과정사연구」와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정년퇴임식을 가질 예정。

이사에서 한국안전유리공업(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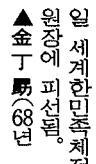


업(주) 전무 한국유리공

련 레닌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안안면외과학회에 참석, 1일부터 7월 2일까지 소



▲申載衡(64년 法大卒)=7월24일 코오롱상사 삼부에서 정부총합청사지점장으로 전보。



▲金丁勗(68년 工大卒·母 일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위원장에 피선됨。

事)=7월16 육성을 목표로 재단법인 청운청소년육성회를 설립하고 초대이사장에 취임。

서울大學校同窓會報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종認可
ㅅ.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鄭 相 鎬**(67 법 行政 ■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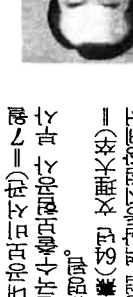
▼**鄭 鎬 燮**(80 법 ■ 25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洙**(79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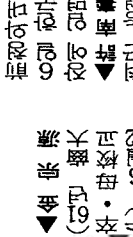
▼**鄭 淳 鎬**(79 법 ■ 8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燮**(75 법 ■ 2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洙**(64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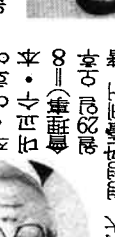
▼**鄭 鎬 鍾**(63 법 ■ 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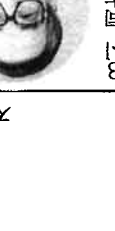
▼**鄭 鎬 淳**(62 법 ■ 5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61 법 ■ 4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源**(60 법 ■ 3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赫**(60 법 ■ 2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柱**(60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59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鼎**(58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仁 淑**(58 법 ■ 2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淳 一**(57 법 ■ 4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元 主**(57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龍 惠**(57 법 ■ 4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事**(55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在 淳**(52 법 ■ 8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淳 一**(53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52 법 ■ 8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50 법 ■ 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泳**(49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相 燁**(49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鼎**(48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洙**(46 법 ■ 8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45 법 ■ 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元 植**(45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沛**(42 법 ■ 9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淳**(40 법 ■ 8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植**(40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鼎**(39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38 법 ■ 5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37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洙**(36 법 ■ 29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泳**(35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沛**(35 법 ■ 9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植**(34 법 ■ 7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鼎**(33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32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32 법 ■ 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鍾**(31 법 ■ 6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31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30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9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8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7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6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5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4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3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2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1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0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9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8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7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6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5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4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3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2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1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0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9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8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7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6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5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4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3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2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1 법 ■ 1회 서울大 人文大學 敎授)

▼**鄭 鎬 卨**(0

잊을 수 없는 스승

科學敎育의 큰별 鄭然泰선생님

선진敎授法 국내傳播한 선각자

中等 과학교육의 礎石마련

글·李 聖 默 (71년 師大卒·모교敎授)

鄭然泰선생님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큰그릇에 담긴 뜻이 되새겨지고 존경을 하게 되는 분이다。선생님께서는 서울대 師範大 物理敎育科에서 1952년부터 36년간 후진양성을 하셨으니 평생을 師大에서 제자양성 및 과학교육을 위해 애쓰셨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경남 진주의 지리산 근처 南沙마을에서 성장하시고 중학을 서울에서 졸업하고 해방전 연희전문학교 理科에 입학하셨다。일제말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해방후 46년 3월 京城大學 물리학과에 입학했다。당시 학원은 국립서울대案의 찬·반대로 조용할 날이 없어 학교를 바꾸어 그 해 9월 서울대 工大 전기과로 편입하시어 2년을 공부하고 48년 8월에 졸업을 하셨다。그로부터 10년후 58년에는 ICA원조계획에 따라 피바디대학에서 과학교육을、밴더빌트대학에서 물리학를 1년간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다。

선생님이 서울대 師大에서 교편을 잡으신것은 1952년으로 피난시절이었다。전쟁이 끝나고 還都직후 을지로校舍(前 경성사범교사)로 옮겼다가 곧 용두동校舍(前 경성여자사범교사)에서 20년간、75년부터는 관악산 종합캠퍼스내의 사범대 안에서 재직하시다 停年을 맞이하셨다。그간 선생님께서 길러낸 8백여명의 많은 인재들이 중등교육현장、연구소및 기타 사회 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또한 중등과학을 위한 연구에 쏟으신 정열로도 선생님은 우리나라 현대 중등과학교육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 할 수 있다。

鄭然泰선생님 하면 그간 제자로서 25년간 모셔오면서 내내 건강하심과 낙천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정년후 4년을 못채우고 지난 4월 8일 타계하시게 되니 인생무상 아쉽기만 하다。필자가 서울대 師大 물리교육과에 입학한 때는 1967년으로 선생님으로서는 학문의 절정기에서 초정력적인 활동을 하시던 때로 생각된다。

당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1학년과목으로 일반물리학을 가르치셨는데 그 두꺼운 일반물리학책을 일년내에 다 가르치시느라고 일주일에 한章의 내용을 강의하셨다。각 장마다 시험을 보게하여 우리들을 고교생같이 열심히 공부시키던 기억이 지금도 훤하다。또한 방학때마다 교사 재교육강습용으로 PSSC물리 등을 중등교사들에게 가르치셨고、새로이 시작된 중등학교의 탐구물리과정및 과학학습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문교부의 교육행정에도 관여하시어 한국의 중등교육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외국유학을 가서도 그때 필자가 받은 실험실습교육이 손색없이 훌륭한 것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PSSC란 57~60년도에 연구 완성된 미국의 물리교육과정으로 범세계적인 과학교육혁신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미국에서는 57년 소련의 최초의 인공위성 SPUTNIK 발사에 충격을 받아 58년에는 科學技術분야에서 우수두뇌 개발을 목적으로 국방교육법안을 제정했다。이 법안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청소년의 우수두뇌 개발을 목적으로 만든 여러 과제중 高校물리교과서로 만든 것이 바로 PSSC물리학 교과서및 학습교재물이다。바로 선생님이 이것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앞장서신 분인데、요즈음 대학 일반물리에서도 인용되고 고교 물리교과서를 펼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당시 과학의 기반이 전무하고 후진국이던 우리로서 이처럼 빨리 선진국의 과학교육과정을 흡수하여 보급하였으니 이로써 한국의 과학교육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새로운 중등과학교육과정은 물리교과에서 시작되었지만 각급 중등학교의 과학과수학교과교육의 개혁을 목적으로 65년 5월에는 한국자연과학교육연구회가 결성되어 정연태선생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연구회는 그 산하에 과학의 여러 분과를 두어 PSSC물리、CHEM화학、BSCS생물、ESCP지구과학、SMSG수학、IPS중학물상、ESS·SCIS초등과학 등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필한뒤 다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선생님이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강습회에 여러번 조교로 참여한적이 있다。그때 중등교사들과 함께 선진국의 探究的 학습방법을 익히며 재미를 느끼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다。당시 물리및 물상에 대한 많은 탐구와 실험지(光學)를 매일 대하게 되는 필자에게는 선생님의 대자연을 통달하고 조화해낸 지혜가 아쉽기만 하다。대학을 졸업하고 조교로 가까이 모시던 시절에 항시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속에 활기찬 연구활동을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잊혀져 가는 아름다운 옛모습으로 남아있다。응집결속력을 만들어 내시고 지도자로서 항시 겸허하셨던 선생님의 지혜와 철학을 필자는 앞으로도 살아나가며 계속 배워야만 할것 같다。

◇ 생존시 선생님 모습

려서부터 아름다운 남사마을에서 성장하시며 천부의 두뇌와 한학의 지혜와 훌륭한 문중에서 자라신 모든것이 뭉쳐 선생님의 인품과 자질을 만들어 냈는가 싶다。

마이크론 미만의 파장세계에서 성장하시며 천부의 두뇌와 한학의 지혜와 훌륭한 문중에서 자라신 모든것이 뭉쳐 선생님의 인품과 자질을 만들어 냈는가 싶다。

英才교육에 남다른熱誠…科學高校설치에도 깊이 관여

선생님께서는 停年후에도 후진들을 교육하시고자 英材교육학원을 개설하셨다。선생님이 영재교육을 하시고자 생각 한것은 57년 미국 과학고등학교를 시찰하신때부터라고 문집에 회고하고 계시나 앞서 소개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탐구과정 연구및 보급 또한 대학에서의 제자양성 등으로 내내 바쁘시다가 정년후에야 영재아들을 모아 직접 교육하시게 되었다。선생님의 지론은 과학영재아들은 특별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과학고교의 설치를 주장하시고 실제로 과학고 설치에 많이 관여하신 것으로 필자는 알고있다。아마도 영재이신 선생님으로서는 젊었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하고 싶으셨을 터이고 그간 모으신 많은 자료로 이제 한국에 영재교육의 씨앗을 뿌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他界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아쉽기만 하다。

선생님은 서울대와 함께하신 제일세대 교수진중의 한분이다。이러한 분들이 그간 쌓올린 노고와 학문의 축적 덕택에 우리 후학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수 있었다。생각해보면 정선생님이 뿌리신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교육이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으로부터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필자는 선생님의 큰 은덕이 생각나 감히 이글을 쓰게 되었다。훌륭한 스승이신 정연태선생님의 萬年의 명복을 빌면서 그간 배출하신 많은 훌륭하신 제자가 이글을 쓰셔야되나 필자가 이 졸문을 쓰게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年會費내주신분

〈6월7일~7월2일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農科大學
▲趙成鎭㊽ 충북대명예교수
◇文理科大學
▲李鍾奎㊿ 쌍용자동차부사장
◇法科大學
▲申五澈㊾ 前 국회의원
◇師範大學
▲柳光烈㊻ 성화출판사사장
▲李桓儀㊽ 국회의원
▲崔昌燮㊺ 정진종합물산 사장
◇藥學大學
▲金基豊㊺ 화생당약국
◇醫科大學
▲權彝赫㊼ 前 환경처장관
◇齒科大學
▲金宗瑞㊼ 김종서치과
◇行政大學院
▲金允植㊿ 메릴랜드대교수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상진㊼ ▲권태인㊽ ▲김해룡㊽ ▲김재일㊻ ▲김철수㊾ ▲김희영㊾ ▲박정태㊼ ▲손승희㊻ ▲신선주㊾ ▲윤성덕㊾ ▲이상희㊾ ▲이순하㊺ ▲이정승㊽ ▲임성재㊼ ▲정치헌㊹ ▲조인식㊼ ▲황인출㊶ ▲진기웅㊽ ▲최유선㊼

◇社會大學
▲강 찬㊾ ▲김 영㊽ ▲김덕인㊾ ▲김태종㊽ ▲남유호㊺ ▲노홍기㊾ ▲박 진㊼ ▲서정수㊼ ▲신희창㊻ ▲유규현㊽ ▲이영현㊼ ▲이태용㊽ ▲이환호㊼ ▲임영빈㊹ ▲정동중㊽ ▲조남제㊼ ▲조은기㊾ ▲최 현㊾ ▲최용제㊻ ▲최정운㊾ ▲표극창㊾ ▲황윤상㊺ ▲권영정㊽ ▲김국원㊹ ▲김용창㊻ ▲김현근㊻ ▲남창근㊸ ▲문스현㊼ ▲박치완㊺ ▲송근철㊾ ▲왕한석㊼ ▲이민섭㊾ ▲이진만㊼ ▲이호곤㊺ ▲임성만㊺ ▲전룡배㊾ ▲정동철㊹ ▲조방수㊼ ▲조재환㊻ ▲최두선㊾ ▲최윤찬㊼ ▲최필선㊺ ▲한만엽㊻

◇自然大學
▲김규환㊾ ▲김성민㊻ ▲김용주㊼ ▲문성채㊽ ▲박유경㊼ ▲신정훈㊼ ▲이상엽㊽ ▲이은성㊽ ▲이홍재㊶ ▲장종만㊻ ▲정선희㊷ ▲조정희㊻ ▲최성우㊻ ▲홍기표㊾ ▲김상규㊽ ▲김영석㊽ ▲문병국㊸ ▲박덕배㊾ ▲송병철㊺ ▲오경환㊻ ▲이상현㊾ ▲이현숙㊾ ▲임선룡㊾ ▲장찬환㊽ ▲정원교㊼ ▲채영기㊾ ▲하남규㊺ ▲홍석륜㊽

◇家政大學
▲강정은㊾ ▲노선숙㊾ ▲박성희㊸ ▲신기영㊾ ▲이지선㊽ ▲이형숙㊸ ▲김은희㊸ ▲민미란㊺ ▲서순복㊹ ▲신옥순㊻ ▲이지은㊺ ▲전임효㊺

◇看護大學
▲김병숙㊻ ▲김영옥㊾ ▲배금자㊹ ▲김정순㊺

◇經營大學
▲유순녕㊸ ▲이건수㊻ ▲진선미㊼ ▲유영희㊾ ▲정경희㊸ ▲한은희㊷ ▲김 철㊹ ▲김재환㊸ ▲김해석㊽ ▲성태홍㊼ ▲오병수㊺ ▲유훈수㊼ ▲이삼민㊼ ▲정현천㊻ ▲조성윤㊻ ▲김영기㊼ ▲김종환㊽ ▲서승현㊾ ▲신창용㊿ ▲윤성중㊹ ▲이두현㊽ ▲이성효㊹ ▲조도근㊽ ▲조성훈㊸

◇工科大學
▲조의규㊿ ▲최재후㊻ ▲최병조㊻ ▲진주화㊼ ▲하호성㊽ ▲최산길㊾ ▲박편주㊷ ▲오 현㊸ ▲신현묵㊽ ▲정환구㊾ ▲강경식㊼ ▲강대신㊷ ▲고유문㊺ ▲곽태근㊺ ▲권영돈㊺ ▲김 영㊽ ▲김경덕㊸ ▲김광수㊾ ▲김기석㊹ ▲김부조㊸ ▲김석기㊹ ▲김민호㊷ ▲김명환㊸ ▲김극천㊸ ▲김관민㊻ ▲김건욱㊼ ▲금동정㊺ ▲곽태규㊼ ▲곽신웅㊼ ▲고찬준㊻ ▲강행언㊺ ▲강경호㊻ ▲황덕규㊾ ▲이봉준㊾ ▲민병찬㊻ ▲신현철㊷ ▲김성수㊾ ▲김병욱㊽ ▲김재호㊷ ▲김재치㊹ ▲김진표㊺ ▲김창시㊼ ▲김태훈㊿ ▲김현도㊸ ▲남상원㊶ ▲노해규㊼ ▲도명규㊾ ▲문영운㊽ ▲민성기㊼ ▲변병욱㊷ ▲박상화㊼ ▲박승운㊿ ▲박영하㊼ ▲박준민㊸ ▲김연식㊿ ▲김연수㊷ ▲김영남㊿ ▲김원식㊻ ▲김은종㊼ ▲김인영㊻ ▲김재호㊷ ▲김종승㊾ ▲김진표㊺ ▲김창경㊸ ▲김종억㊺ ▲김재화㊺ ▲김인환㊸ ▲김은철㊶ ▲김유환㊻ ▲김융회㊽ ▲김연순㊿ ▲김순민㊸ ▲김정우㊶ ▲김영수㊶ ▲김성양㊺ ▲박삼구㊽ ▲민재호㊽ ▲문찬국㊼ ▲명차리㊻ ▲노환영㊷ ▲남시도㊸ ▲김회재㊿ ▲김편호㊺ ▲김태호㊸ ▲김철기㊶ ▲김창경㊸ ▲김종억㊺ ▲김재화㊺ ▲김인환㊸ ▲김은철㊶ ▲김유환㊻ ▲김융회㊽ ▲김연식㊿ ▲김순민㊸ ▲유영원㊷ ▲유창상㊽ ▲유지호㊼ ▲유병철㊻ ▲유경준㊻ ▲위영인㊻ ▲우철호㊼ ▲오석해㊿ ▲염기현㊺ ▲양홍석㊼ ▲양수길㊼ ▲안정준㊹ ▲신창덕㊷ ▲송병선㊷ ▲성관제㊶ ▲변재국㊺ ▲배창정㊼ ▲배희동㊽ ▲박형호㊽ ▲박찬섭㊿ ▲윤병조㊽ ▲윤덕룡㊼ ▲유일상㊺ ▲유무웅㊹ ▲유지수㊺ ▲원종회㊾ ▲오세영㊽ ▲오상수㊽ ▲여민홍㊻ ▲염 준㊽ ▲양영모㊸ ▲안치섭㊽ ▲심재승㊽ ▲송주철㊶ ▲송만규㊶ ▲서재웅㊺ ▲백봉근㊹ ▲배동환㊸ ▲박희경㊼ ▲박형순㊺ ▲장호남㊼ ▲최창환㊹ ▲최중호㊼ ▲최영태㊺ ▲최선호㊹ ▲최두환㊼ ▲최광엽㊸ ▲천강엽㊽ ▲차영점㊺ ▲차상홍㊸ ▲주진복㊽ ▲조형제㊺ ▲주태진㊼ ▲조일제㊺ ▲조규한㊾ ▲정혁수㊼ ▲정우성㊻ ▲정우상㊸ ▲정규현㊼ ▲정 진㊽ ▲전도영㊹ ▲최하경㊸ ▲최창영㊾ ▲최재웅㊾ ▲최성배㊻ ▲최병우㊼ ▲최규화㊼ ▲최 무㊾ ▲채수건㊺ ▲차선형㊺ ▲차기원㊼ ▲주경재㊼ ▲조현우㊼ ▲조정수㊶ ▲조도선㊾ ▲정현교㊾ ▲정헌욱㊽ ▲정재길㊶ ▲정연철㊽ ▲정갑종㊷ ▲전재각㊻ ▲전경수㊼ ▲장정원㊼ ▲장병탁㊻ ▲임민수㊼ ▲이현섭㊼ ▲이해경㊺ ▲이찬호㊼ ▲이정호㊼ ▲이정우㊺ ▲이재건㊸ ▲이인법㊻ ▲이용우㊼ ▲이여은㊺ ▲이승부㊺ ▲이성오㊽ ▲이선식㊸ ▲이상현㊼ ▲이상국㊹ ▲이병국㊻ ▲이면희㊼ ▲이돈효㊻ ▲이기세㊺ ▲이경일㊾ ▲유한욱㊺ ▲유주영㊼ ▲임태빈㊼ ▲이행부㊺ ▲이찬복㊼ ▲이준화㊼ ▲이정용㊸ ▲이정만㊹ ▲이인태㊺ ▲이의일㊺ ▲이완영㊸ ▲이시우㊾ ▲이성원㊽ ▲이선현㊼ ▲이상희㊽ ▲이상수㊽ ▲이봉오㊷ ▲이민종㊸ ▲이동권㊽ ▲이대란㊻ ▲이경하㊼ ▲이경신㊻ ▲장보영㊼ ▲장정원㊼ ▲임민수㊼ ▲이해경㊺ ▲이찬호㊼ ▲이정호㊼ ▲이정우㊺ ▲이재건㊸ ▲이인법㊺ ▲이용우㊼ ▲이여은㊺ ▲이승부㊺ ▲이성오㊽ ▲이선식㊸ ▲이상현㊼ ▲이상국㊹ ▲이병국㊻ ▲이면희㊼ ▲이돈효㊻ ▲이기세㊺ ▲이경일㊾ ▲유한욱㊺

◇農科大學
▲최형욱㊽ ▲편영준㊽ ▲한순교㊺ ▲한기연㊼ ▲한용인㊽ ▲허 종㊷ ▲홍기혁㊻ ▲황성호㊽ ▲김용철㊴ ▲김건호㊹ ▲김납현㊽ ▲김영호㊼ ▲김원수㊷ ▲김종성㊻ ▲김태훈㊺ ▲남정배㊼ ▲노홍섭㊽ ▲민경대㊹ ▲박동철㊹ ▲박석홍㊺ ▲박준기㊷ ▲박현룡㊾ ▲백창영㊸ ▲서종은㊺ ▲손석주㊽ ▲송기홍㊺ ▲신서균㊹ ▲신종복㊽ ▲심재범㊺ ▲안세희㊽ ▲양성렬㊻ ▲오현준㊶ ▲유원형㊹ ▲유후성㊶ ▲윤화기㊼ ▲이돈구㊾ ▲이명희㊼ ▲이병일㊸ ▲이삼보㊺ ▲이수창㊼ ▲이옥연㊼ ▲이종운㊼ ▲이중기㊻ ▲이진희㊺ ▲이춘환㊽ ▲장기선㊹ ▲장형준㊾ ▲정봉진㊼ ▲정재현㊺ ▲정현아㊻ ▲조장호㊺ ▲최우봉㊻ ▲최정식㊾ ▲홍순영㊸ ▲한상봉㊸ ▲김 준㊾ ▲강우상㊼ ▲권대일㊽ ▲홍익수㊺ ▲홍규식㊻ ▲허진규㊸ ▲한영환㊶ ▲한명수㊼ ▲하춘동㊾ ▲최홍식㊸ ▲홍선민㊿ ▲최진자㊾ ▲최유풍㊻ ▲최상기㊸ ▲조경근㊼ ▲정정민㊻ ▲정영민㊺ ▲정무남㊼ ▲장지혁㊼ ▲임정부㊺ ▲이창호㊾ ▲이진성㊸ ▲이종호㊺ ▲이용주㊹ ▲이영덕㊷ ▲이순옥㊹ ▲이수성㊸ ▲이복남㊸ ▲이문식㊽ ▲이만복㊻ ▲이규진㊽ ▲윤재수㊼ ▲유뉴상㊼ ▲오홍수㊻ ▲양승엽㊻ ▲안창원㊼ ▲안상옥㊸ ▲신현경㊾ ▲신자철㊷ ▲송원준㊼ ▲송기종㊷ ▲손기성㊾ ▲서상호㊿ ▲박홍복㊻ ▲박준용㊾ ▲박신호㊽ ▲박문경㊸ ▲박광훈㊼ ▲민한영㊼ ▲문봉선㊾ ▲노상하㊼ ▲남용희㊾ ▲김종현㊾ ▲김의철㊼ ▲김욱생㊼ ▲김부겸㊾ ▲김건환㊺ ▲권대일㊽ ▲강우상㊼ ▲김 준㊾

◇文理科大學
▲강회정㊻ ▲구연규㊻ ▲김경화㊸ ▲김규완㊸ ▲김덕창㊸ ▲김병상㊸ ▲김석준㊽ ▲김순복㊸ ▲김언경㊻ ▲김종오㊸ ▲김진정㊹ ▲김현권㊼ ▲김현배㊹ ▲김형배㊼ ▲명제영㊾ ▲문승익㊺ ▲박상태㊸ ▲박원우㊹ ▲배두홍㊺ ▲변창명㊻ ▲서상일㊽ ▲서정욱㊹ ▲심규철㊼ ▲양재섭㊼ ▲유근일㊻ ▲유현인㊼ ▲윤 식㊹ ▲윤상규㊻ ▲윤혁기㊼ ▲이도일㊾ ▲이병대㊺ ▲이부남㊺ ▲이석재㊷ ▲이용재㊻ ▲이정숙㊼ ▲이조영㊾ ▲이중원㊿ ▲이철우㊸ ▲이해승㊼ ▲임승준㊼ ▲장화순㊾ ▲전관현㊶ ▲정찬용㊾ ▲조규향㊼ ▲조우제㊼ ▲주영돈㊹ ▲지정택㊹ ▲최규봉㊼ ▲최병현㊼ ▲최종탁㊽ ▲최준성㊾ ▲한영희㊿ ▲현영원㊹ ▲홍성대㊸ ▲홍영남㊹ ▲황분웅㊷ ▲김순철㊼ ▲김동선㊼ ▲홍명신㊺ ▲홍승수㊼ ▲황영선㊸ ▲홍원희㊸ ▲김 영㊽ ▲김 식㊹ ▲김 룡㊽ ▲김 정㊼ ▲김 현㊼ ▲김 홍㊸ ▲김 룡㊽

8月은 會費完納의 달

未納동문은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윤㊹ ▲석의수㊽ ▲선낙천㊾ ▲성순경㊽ ▲손남석㊼ ▲송영욱㊶ ▲송재룡㊷ ▲신경식㊻ ▲신용진㊼ ▲신현루㊽ ▲안준수㊸ ▲양태현㊸ ▲오진환㊾ ▲오효원㊼ ▲우종훈㊹ ▲유상순㊽ ▲유치석㊽ ▲윤동민㊼ ▲윤영배㊶ ▲윤종현㊾ ▲은창용㊽ ▲이교림㊼ ▲이금철㊷ ▲이극로㊿ ▲이동특㊸ ▲이문호㊹ ▲이병원㊾ ▲이상규㊶ ▲이상운㊾ ▲이순동㊻ ▲이양원㊷ ▲이영구㊺ ▲이용권㊶ ▲이원구㊷ ▲이유영㊼ ▲이진규㊺ ▲이진세㊸ ▲이인호㊾ ▲이원석㊼ ▲이용우㊺ ▲이영애㊶ ▲이언환㊶ ▲이승진㊼ ▲이세창㊶ ▲이석희㊿ ▲이상민㊹ ▲이병한㊽ ▲이백수㊶ ▲이명순㊾ ▲이대식㊶ ▲이근병㊸ ▲이규녕㊶ ▲이 용㊺ ▲유태남㊽ ▲윤종근㊾ ▲윤성혁㊷ ▲유태현㊹ ▲유종해㊹ ▲원우현㊺ ▲우영진㊻ ▲오태환㊼ ▲오달수㊾ ▲양기준㊺ ▲안종택㊼ ▲신종대㊷ ▲신완수㊾ ▲송철근㊺ ▲송영필㊶ ▲손정주㊹ ▲손기식㊷ ▲설달용㊹ ▲선인원㊸ ▲석성환㊾

▲홍성우㊶ ▲허남훈㊷ ▲한형건㊹ ▲추규선㊸ ▲최중현㊸ ▲최유식㊸ ▲최용은㊸ ▲최명부㊸ ▲최기태㊸ ▲주민희㊼ ▲조준웅㊼ ▲조정찬㊽ ▲조규대㊼ ▲정한상㊺ ▲정원익㊻ ▲정승진㊽ ▲정동유㊸ ▲장용국㊺ ▲장 호㊼ ▲임승관㊹ ▲이효흠㊼ ▲이현구㊶ ▲이학무㊾ ▲이태권㊺ ▲이진규㊺ ▲이유영㊼ ▲이원구㊷ ▲이용권㊶ ▲이영구㊺ ▲이양원㊷ ▲이순동㊻ ▲이성훈㊺ ▲이상운㊾ ▲이상규㊽ ▲이병원㊾ ▲이문호㊹ ▲이동특㊸ ▲이금철㊷ ▲이극로㊿ ▲이교림㊼ ▲은창용㊽ ▲윤종현㊾ ▲윤영배㊶ ▲윤동민㊼ ▲유치석㊽ ▲유상순㊽ ▲우종훈㊹ ▲오효원㊼ ▲오진환㊾ ▲양태현㊸ ▲안준수㊸ ▲신현루㊽ ▲신용진㊼ ▲신경식㊻ ▲송재룡㊷ ▲송영욱㊶ ▲손남석㊼ ▲성순경㊽ ▲석의수㊽ ▲선낙천㊾ ▲설달용㊹ ▲선인원㊸ ▲석성환㊾

▲황경진㊻ ▲허란주㊽ ▲한홍건㊽ ▲한승희㊶ ▲최형모㊼ ▲최유이㊾ ▲최윤수㊾ ▲최병루㊷ ▲최동희㊽ ▲주진하㊽ ▲조찬형㊷ ▲조종현㊺ ▲조세연㊼ ▲조경래㊺ ▲정제화㊺ ▲정영환㊼ ▲정병건㊼ ▲정기환㊺ ▲장성수㊽ ▲임종선㊶ ▲이희철㊺ ▲이현돈㊷ ▲이학녕㊵ ▲이택돈㊼ ▲이진세㊸ ▲이인호㊾ ▲이원석㊼ ▲이용우㊺ ▲이영애㊶ ▲이언환㊶ ▲이승진㊼ ▲이세창㊶ ▲이석희㊿ ▲이상민㊹ ▲이병한㊽ ▲이백수㊶ ▲이명순㊾ ▲이대식㊶ ▲이근병㊸ ▲이규녕㊶ ▲이 용㊺ ▲유태남㊽ ▲윤종근㊾ ▲윤성혁㊷ ▲유태현㊹ ▲유종해㊹ ▲원우현㊺ ▲우영진㊻ ▲오태환㊼ ▲오달수㊾ ▲양기준㊺ ▲안종택㊼ ▲신종대㊷ ▲신완수㊾ ▲송철근㊺ ▲송영필㊶ ▲손정주㊹ ▲손기식㊷ ▲설달용㊹ ▲선인원㊸ ▲석성환㊾

◇ 師範大學

▲황인규㊸ ▲황인만㊸ ▲신의범㊶ ▲정해곤㊼ ▲홍재익㊼ ▲김요숙㊽ ▲홍동은㊶ ▲강영삼㊸ ▲고기병㊾ ▲강한식㊸ ▲김광인㊾ ▲김경수㊽ ▲김규호㊻ ▲김상섭㊺ ▲김성식㊺ ▲김성탁㊻ ▲김순형㊺ ▲김연주㊾ ▲김영찬㊾ ▲김영희㊼ ▲김용길㊼ ▲김용옥㊼ ▲김용석㊽ ▲김윤철㊷ ▲김진원㊼ ▲김태숙㊷ ▲김형국㊷ ▲남두만㊽ ▲노옥섭㊿ ▲노희덕㊼ ▲전우창㊹ ▲조익선㊵ ▲권영인㊱ ▲이재현㊽ ▲강병주㊻ ▲강의식㊼ ▲경희호㊹ ▲구광조㊽ ▲김경호㊺ ▲김교정㊽ ▲김기득㊹ ▲김상식㊽ ▲김세진㊹ ▲김성수㊹ ▲김영국㊸ ▲김영희㊼ ▲김용석㊽ ▲김윤철㊷ ▲김진원㊼ ▲김태숙㊷ ▲김형국㊷ ▲남두만㊽ ▲노옥섭㊿ ▲노희덕㊼

▲노은영㊷ ▲남한식㊺ ▲김홍동㊼ ▲김현중㊺ ▲김창호㊸ ▲김언숙㊽ ▲김용옥㊼ ▲김용길㊼ ▲김영찬㊾ ▲김연주㊾ ▲김순형㊺ ▲김성탁㊻ ▲김상섭㊺ ▲김규호㊻ ▲김광인㊾ ▲김경수㊽ ▲고기병㊾ ▲강한식㊸ ▲강영삼㊸ ▲홍동은㊶ ▲김요숙㊽ ▲홍재익㊼ ▲정해곤㊼ ▲신의범㊶ ▲황인규㊸

▲이용식㊽ ▲이영주㊻ ▲이선원㊾ ▲이상규㊻ ▲이무일㊿ ▲이동식㊻ ▲이동규㊺ ▲이구범㊸ ▲유희옥㊻ ▲우종란㊸ ▲오병승㊼ ▲안하운㊷ ▲안억수㊺ ▲안국진㊻ ▲안경석㊽ ▲신형범㊽ ▲신동순㊸ ▲신동성㊼ ▲송용건㊺ ▲송재숙㊺ ▲손욱호㊻ ▲방재곤㊻ ▲박정남㊶ ▲박원선㊹ ▲박두천㊺ ▲박남기㊶ ▲박근생㊼ ▲모택상㊻

▲이인화㊼ ▲이용률㊺ ▲이신구㊸ ▲이석천㊽ ▲이병석㊿ ▲이명선㊷ ▲이동수㊾ ▲이기영㊷ ▲이경우㊾ ▲유의순㊼ ▲오현선㊽ ▲여병구㊶ ▲안창원㊼ ▲안병욱㊽ ▲심산법㊹ ▲신효식㊷ ▲신철지㊺ ▲신동숙㊸ ▲송재숙㊺ ▲송예찬㊻ ▲손수일㊺ ▲박종춘㊶ ▲박인식㊷ ▲박영배㊷ ▲박대식㊺ ▲박기석㊾ ▲박규홍㊸

▲오연근㊿ ▲엄치섭㊽ ▲양해영㊼ ▲신태환㊱ ▲송진섭㊺ ▲송승국㊹ ▲송달호㊻ ▲설백규㊺ ▲설기호㊹ ▲변웅수㊸ ▲배종규㊶ ▲박흥제㊺ ▲박성조㊺ ▲박경석㊼ ▲문동준㊶ ▲나병규㊷ ▲김태범㊺ ▲김정환㊺ ▲김일환㊹ ▲김의석㊽ ▲김영진㊼ ▲김수필㊻ ▲김생태㊼ ▲김기성㊻ ▲권순중㊼ ▲곽치영㊺ ▲고일성㊽

▲우영주㊼ ▲오팽선㊼ ▲어영권㊾ ▲양경달㊽ ▲신광규㊾ ▲송진명㊷ ▲송병규㊼ ▲소구영㊹ ▲성낙교㊹ ▲변원목㊺ ▲백종민㊿ ▲배 화㊻ ▲박춘택㊹ ▲박문달㊺ ▲문영식㊺ ▲남원일㊹ ▲김태현㊶ ▲김진천㊼ ▲김정순㊾ ▲김의영㊽ ▲김용일㊷ ▲김영수㊼ ▲김사철㊶ ▲김병순㊷ ▲김건수㊻ ▲권명식㊹ ▲공성대㊿

▲이재양㊼ ▲이세복㊽ ▲이 윤㊷ ▲안종무㊻ ▲안영국㊶ ▲신화법㊽ ▲배유상㊽ ▲박종탁㊼ ▲박유미㊽ ▲문범수㊻ ▲남인식㊾ ▲김종수㊽ ▲김용정㊷ ▲김선한㊻ ▲김기천㊾ ▲김근숙㊼ ▲곽영의㊺ ▲강욱점㊽ ▲한덕환㊿ ▲손동하㊾ ▲김수형㊿ ▲배윤도㊶

◇ 藥學大學

▲이종덕㊷ ▲이창엽㊸ ▲한정윤㊹

▲백승룡㊸ ▲박종민㊼ ▲박민선㊾ ▲박관현㊻ ▲김현규㊾ ▲김철규㊹ ▲김이영㊻ ▲김봉석㊽ ▲김명석㊽ ▲김동옥㊾ ▲권진규㊼ ▲강희찬㊷ ▲강영호㊶ ▲유현복㊾ ▲양만규㊾ ▲박정규㊾ ▲박이철㊸ ▲강형룡㊽ ▲김권호㊻ ▲김기룡㊼ ▲김병택㊹ ▲김영회㊷ ▲김선한㊻ ▲김근숙㊼ ▲김종수㊽ ▲김용정㊷ ▲김홍중㊽ ▲류선민㊾ ▲문창율㊶ ▲박정규㊹ ▲박진자㊺ ▲백승원㊺ ▲신화용㊿ ▲안영국㊻ ▲안종무㊻ ▲이 윤㊷ ▲이세복㊽ ▲이재양㊼

▲이정규㊷ ▲이완우㊶ ▲이상명㊺ ▲유영필㊾ ▲안영근㊻ ▲신화법㊽ ▲배유상㊽ ▲박종탁㊼ ▲박유미㊽ ▲문범수㊻ ▲남인식㊾ ▲김종수㊽ ▲김용정㊷ ▲김선한㊻ ▲김기천㊾ ▲김근숙㊼ ▲곽영의㊺ ▲강욱점㊽ ▲한덕환㊿ ▲손동하㊾ ▲김수형㊿ ▲배윤도㊶

▲김홍중㊽ ▲김용길㊹ ▲김영회㊷ ▲김병택㊹ ▲김기룡㊼ ▲김권호㊻ ▲고광호㊾ ▲한복영㊾ ▲유룡옥㊿ ▲김홍기㊾ ▲신현우㊶

◇ 醫科大學

▲박제교㊺ ▲박이철㊸ ▲강형룡㊽ ▲박정규㊾ ▲양만규㊾ ▲유현복㊾ ▲강영호㊶ ▲강희찬㊷ ▲권진규㊼ ▲김동옥㊾ ▲김명석㊽ ▲김봉석㊽ ▲김이영㊻ ▲김철규㊹ ▲김현규㊾ ▲문형노㊸ ▲박관현㊻ ▲박민선㊾ ▲박종민㊼ ▲백승룡㊸

▲변종훈㊺ ▲박찬후㊾ ▲박용화㊶ ▲박부희㊻ ▲문형식㊻ ▲김홍규㊼ ▲김하용㊽ ▲김정진㊼ ▲김용진㊺ ▲김병훈㊽ ▲김극구㊻ ▲김동섭㊻ ▲고경룡㊻ ▲강윤구㊽ ▲이능규㊼ ▲유재훈㊼ ▲손병선㊽ ▲김규태㊼ ▲강일권㊽ ▲위동렬㊹

▲전소영㊹ ▲조동제㊾ ▲조민정㊾ ▲한명희㊹ ▲한현정㊼ ▲홍순덕㊼ ▲천정희㊼ ▲조문자㊻ ▲정수진㊼ ▲장정익㊺

◇ 音樂大學

▲박정섭㊺ ▲황의성㊺ ▲최정애㊹ ▲최숙경㊾ ▲지택용㊽ ▲조순영㊽ ▲조기창㊽ ▲정월영㊷ ▲장현식㊸ ▲이천우㊹ ▲송원숙㊿ ▲김혜성㊼ ▲김금수㊽ ▲김은정㊻ ▲김진선㊽ ▲김혜경㊺ ▲문명자㊽ ▲박근정㊼ ▲배은경㊽ ▲신경욱㊻ ▲유신선㊽ ▲이동남㊿ ▲이미란㊽ ▲이창희㊹ ▲임헌정㊻

▲장복희㊽ ▲이한돈㊸ ▲이수철㊽ ▲이명진㊹ ▲이기정㊻ ▲우화경㊷ ▲서혜연㊺ ▲박지수㊻ ▲박경옥㊽ ▲노주희㊻ ▲김형순㊷ ▲김은정㊷ ▲김기범㊼ ▲김경혜㊺ ▲강진구㊺ ▲홍순옥㊸ ▲홍종욱㊸ ▲최은영㊽ ▲지현준㊼ ▲조지웅㊾ ▲조남주㊼ ▲정호진㊷ ▲정유자㊸ ▲임정옥㊺

▲임헌정㊻ ▲이창엽㊸ ▲한정윤㊹ ▲이 윤㊷ ▲안종무㊻ ▲안영국㊶ ▲신화법㊽ ▲배유상㊽ ▲박종탁㊼ ▲박유미㊽ ▲문범수㊻ ▲남인식㊾ ▲김종수㊽ ▲김용정㊷ ▲김선한㊻ ▲김기천㊾ ▲김근숙㊼ ▲곽영의㊺ ▲강욱점㊽ ▲한덕환㊿ ▲손동하㊾ ▲김수형㊿ ▲배윤도㊶

▲김홍중㊽ ▲김용길㊹ ▲김영회㊷ ▲김병택㊹ ▲김기룡㊼ ▲김권호㊻ ▲고광호㊾ ▲한복영㊾ ▲유룡옥㊿ ▲김홍기㊾ ▲신현우㊶

◇ 齒科大學

▲김숙형㊵ ▲김의식㊹ ▲염태섭㊿ ▲조이봉㊾ ▲강석봉㊾ ▲권오선㊽ ▲김경애㊶ ▲김성택㊺ ▲김영기㊽ ▲김용남㊹ ▲김인석㊻ ▲김종태㊻ ▲김창룡㊻ ▲김화희㊽ ▲문진석㊽ ▲박성수㊼ ▲박해승㊽ ▲방효숙㊶ ▲양수정㊾ ▲유치린㊸ ▲유성일㊻ ▲유헌수㊼ ▲유희철㊶ ▲이기훈㊹ ▲이삼재㊶ ▲이영식㊾ ▲이용오㊽ ▲이종수㊻ ▲이준섭㊽ ▲임동욱㊸ ▲임섭삼㊷

▲김명동㊼ ▲이용팔㊷ ▲이동수㊶ ▲최병민㊿ ▲강창권㊽ ▲김 준㊺ ▲김도윤㊺ ▲김세동㊼ ▲김용각㊺ ▲김은수㊷ ▲김정우㊻ ▲길주관㊷ ▲김화선㊻ ▲문영환㊸ ▲박윤현㊸ ▲방수남㊽ ▲백성기㊽ ▲어수철㊻ ▲윤동호㊽ ▲윤종숙㊷ ▲유형수㊾ ▲이금룡㊹ ▲이덕희㊽ ▲이시우㊺ ▲이영은㊽ ▲이원철㊾ ▲이종흠㊶ ▲이창우㊶ ▲임병채㊻ ▲임정규㊻

▲서상완㊺ ▲서창해㊾ ▲송계승㊽ ▲신상만㊼ ▲신정인㊹ ▲안영찬㊾ ▲오세오㊺ ▲우제홍㊼ ▲유 빈㊹ ▲윤자헌㊾ ▲이 희㊺ ▲이길진㊾ ▲이상철㊽ ▲이승철㊽ ▲이용규㊻ ▲이중근㊹ ▲이해영㊺ ▲이홍복㊹ ▲장윤실㊾ ▲전대한㊺ ▲전상룡㊽ ▲전홍법㊽ ▲조대윤㊼ ▲조성근㊸ ▲최강원㊾ ▲최병인㊹ ▲최익순㊼ ▲허윤석㊾

▲서유헌㊸ ▲성호경㊼ ▲송계룡㊸ ▲신원석㊽ ▲안관필㊸ ▲오세영㊿ ▲왕규창㊾ ▲원영천㊽ ▲유영환㊻ ▲은희철㊹ ▲이갑로㊼ ▲이남수㊿ ▲이성우㊽ ▲이승영㊹ ▲이종국㊼ ▲이춘식㊼ ▲이현진㊷ ▲장기현㊼ ▲전기주㊼ ▲전병훈㊷ ▲전정열㊷ ▲정영태㊼ ▲조병규㊿ ▲조성욱㊼ ▲최동수㊻ ▲최승순㊽ ▲최진숙㊹ ▲홍성훈㊼

▲서병준㊺ ▲서상완㊺ ▲송계승㊽ ▲신상만㊼ ▲신정인㊹ ▲안영찬㊾ ▲오세오㊺ ▲우제홍㊼ ▲유 빈㊹ ▲윤자헌㊾ ▲이 희㊺ ▲이길진㊾ ▲이상철㊽ ▲이승철㊽ ▲이용규㊻ ▲이중근㊹ ▲이해영㊺ ▲이홍복㊹ ▲장윤실㊾ ▲전대한㊺ ▲전상룡㊽ ▲전홍법㊽ ▲조대윤㊼ ▲조성근㊸ ▲최강원㊾ ▲최병인㊹ ▲최익순㊼ ▲허윤석㊾

◇ 大學院

▲남명희㊻ ▲민용규㊹ ▲장정순㊺ ▲지충수㊼ ▲최석문㊺ ▲남세진㊻ ▲이종광㊹ ▲정중현㊼ ▲채의엽㊷ ▲홍대식㊽ ▲장병천㊹ ▲전통진㊻ ▲정용식㊼ ▲진우정㊽ ▲최숙희㊻ ▲최치갑㊾ ▲한남수㊼ ▲한형진㊽ ▲현기용㊸ ▲전광익㊾ ▲정봉운㊻ ▲정유석㊼ ▲차도신㊼ ▲최영희㊷ ▲탁미선희㊷ ▲한무성㊽ ▲허정국㊾

◇ 經營大學院

▲김정웅㊼ ▲노동설㊼ ▲박준석㊾ ▲이광수㊼ ▲한일수㊸

◇ 敎育大學院

▲노재봉㊹ ▲이상용㊼ ▲최홍규㊽

◇ 保健大學院

▲강탁림㊻ ▲김화중㊼ ▲박보훈㊼ ▲백상철㊶ ▲변광훈㊸ ▲서성제㊸ ▲서인선㊷ ▲안상선㊽ ▲안소영㊼ ▲이재관㊸ ▲최병희㊺

◇ 司法大學院

▲김진세㊾

◇ 新聞大學院

▲서성창㊼ ▲안성규㊸

◇ 行政大學院

▲강준호㊼ ▲김명진㊾ ▲노선호㊽ ▲박영삼㊼ ▲박찬도㊻ ▲송상민㊾ ▲송종면㊻ ▲신동천㊻ ▲신성섭㊾ ▲유경득㊷ ▲이현승㊶ ▲이호인㊾ ▲최천근㊷ ▲홍명선㊹ ▲김대성㊾ ▲김두성㊷ ▲박길홍㊻ ▲박노영㊼ ▲이해균㊹ ▲이희춘㊻ ▲전준항㊾ ▲조선제㊶ ▲최봉기㊼ ▲최영환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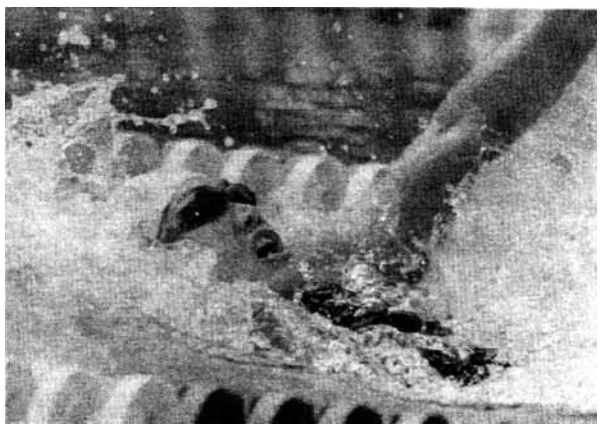
◇ 環境大學院

▲김기남㊺ ▲전병우㊷ ▲정승주㊾ ▲조재훈㊽ ▲김재우㊼ ▲박무웅㊽ ▲송인성㊺ ▲전희상㊾ ▲현도관㊼ ▲진영훈㊷ ▲한태호㊾

水泳의 효능과 기초

鄭 哲 秀 〔72년 師大卒·모교敎授〕

인간이 直立 동물이 되면서 부터 네발 동물과는 달리 臟器나 소화기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를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수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물 속에서의 호흡은 지상에서의 양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영은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물이란 자연 조건으로 운동 부하를 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더구나 찬물에 몸을 담



◇水泳은 균형있는 신체발달과 정서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피부가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부와 피부가 서로 닿을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게 된다. 또한 인간을 다른 환경에 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적응 능력을 높여 주며 침착성, 인내심, 용기를 갖게 함으로써 일상 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아울러 정서적 안정을 준다.

그런데 수영은 물이라는 매체를 통한 안전성과 위험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특수한 운동이다. 물은 인간의 신체보다 比重이 약간 높아 온이나 직사광선을 감안해 오전 10-12시, 오후 2-5시가 적절하다.

인간이 물속에서 뜰 수 있는 신체적 장점은 허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의 비중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뼈, 근육, 지방 등을 합쳐 물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吸氣 상태 즉 허파내 공기를 내포할 때는 비중이 물보다 약간 낮아져 물에 뜨게 된다. 그러나 수영을 하는 수평자세로 뜨기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간신체의 역학적 구조가 수평으로 뜰때 부력이 중력보다 머리쪽으로 치우치므로 다리가 가라 앉게 되는데 수평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한 초보자는 물에 뜨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關節에 부담없는 운동 자신감·情緖안정 도모

초보자에겐 크롤泳法이 적합

초보자의 경우 수영을 익히려면 두엇보다 먼저 물과 친숙해져야 한다. 물이 얼굴에 닿는 것이 괴롭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물속에서 놀이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면 물속에서 숨참기, 물속에서 물건찾기, 물속에서 친구와 가위바위 보, 물싸움 등의 놀이를 즐기면 자연스럽게 물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 단계를 지나면 물에서 저항을 최소로 줄이는 수평 떠 나가기를 시작해 보자. 이 자세는 온몸을 쭉 펴서 벽이나 물바닥을 차고 나가면서 수행한다.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데 완전히 몸에 밸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익힐 동작은 호흡이다. 이 동작은 물속에서 오래 내뱉고 물밖에서 짧게 들이쉬는 동작인데 백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泳法을 익혀야 하는데 영법에는 평영, 크롤, 접영, 배영, 기본배영, 모자비헤엄 등이 있다. 이중 초보자가 흔히 처음 배우게 되는 영법이 평영과 크롤이다. 학자들 간에 어느 영법을 먼저 초보자에게 지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으나 본인은 크롤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쉽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겠으나 간단히 말해 크롤은 항상 신체가 쭉 편 추진 자세를 유지하므로 신체가 구부러 지는 단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들겠다. 수영의 추진력은 평영은 다리에서, 크롤은 팔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 초보자는 먼저 다리동작을 연습하여 부판을 잡고 다리로만 25m정도 갈 수 있을때 팔동작을 연습한다. 팔동작은 다리동작과 같이 부판을 손으로 잡고 연습을 한다. 이때 호흡도 같이 병행하여 25m를 반복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할 수 있을 때 까지 실시한다. 다음에 부판의 보조 없이 25m정도를 하게되면 수영의 초보자 단계를 완수했다고 보겠다.

健康 敎室

骨多空症

金 南 桂
〔68년 보건대학원卒
잠실韓醫院長〕

腎臟기능과 밀접한 관련

균형있는 生活이 예방법

근래 문명이기의 덕분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편해지면서 뜻하지 않게 뼈에 대한 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뼈는 인체의 모양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인체내부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한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뼈는 피를 생산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쓰면 쓸수록 뼈는 튼튼해 지기도 한다.

더구나 뼈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40대 이후의 장년기에 나타나며 특히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부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방의학에서는 뼈에 대한 중요성이나 뼈의 질병에 대하여는 그리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과로와 스트레스도 原因

한방의학에서 보는 뼈의 병리생리현상은 다음과 같다.

◎ 신장(腎臟)은 뼈를 주관한다.

◎ 뼈는 골수를 간직하고 있다.

◎ 골수는 음식과 오미(五味)로 만들어지니 골수가 적으면 뼈가 약해진다.

◎ 골위증(骨痿症)은 신장의 기(氣)가 부족하여 골수 유발시키고 골다공증도 유발시킨다.

골다공증의 종류는 골다공증 노인성골다공증 소아성골다공증 갱년기골다공증이 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갱년기장애 흡연 부비이상 영양부족 과로 스트레스 임신 출혈 편식 노쇠 신부전증 신장염 알콜중독 마약중독 약물중독 칼슘결핍 부신피질홀몬 과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 골위증(骨痿症)은 뼈속에 열이 있고 사지가 약해져 움직이지를 못한다.

◎ 골통증(骨痛症)은 뼈가 쑤시고 아프며 풍을 습체 담증이다.

이상으로 보아서 뼈와 신장(腎臟)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에 있는 칼슘대사와 뇨산대사가 이상을 일으켜서 관절염도 나타나고, 현기증이 많으며, 체중이 감소되고, 관절염이 나타나며, 만성요통증과 골통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외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고 시큰거거나,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겁고 아프거나, 이마가 항상 뜨겁고 두통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면 쓰러질것만 같다.

골다공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으며 이중에서 약물요법에 대하여 말하면 가갈호르산, 가감이묘산, 가감보신환, 가감신묘미음전, 가감천대보환, 가감녹용대보환 등 여러가지 처방을 체질에 맞도록 쓰면 잘 듣는다.

이중에서도 동종요법에 의한 가갈호르산은 본인의 경험에 의하여 퍽이나 효과적이다.

골다공증의 예방법은 균형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말고, 과로해서는 안된다.

독신녀의나 지나친 산아제한도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지나친 다산(多産)도 지나친 수유(授乳)도 원인이 되므로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분주와 순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40代이후 장년, 특히 主婦에 빈번

新刊

■價値觀硏究

— 高範瑞著(51년 師大卒·한림대교수)

한국인의 현대가치관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고 있다.(나남刊·1만2천원)

■世界史를 보는 시각과 방법

— 羅鍾一著(52년 文理大卒·서울대명예교수)

월러스틴, 브로델등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소개.(창작과 비평사刊·6천5백원)

■다시우는새

— 柳岸津著(65년 師大卒 서울대교수)

유교적 문화속에서 희생당한 여인들의 운명을 그린 장편소설.(스포츠서울刊·5천원)

■W이론을 만들자

— 李冕雨著(68년 工大卒·서울대교수)

美國제조업의 발전을 가져온 X.Y이론과 일본의 Z이론과는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경영철학(W이론)을 제시.(지식산업사刊·5천원)

■풀이에서 매김으로

— 曺南鉉著(70년 文理大卒·서울대교수)

신경림 김광규등 시인론과 박완서 김원일등 소설가에 대한 작품론.(고려원刊·5천원)

■知識國家論

— 崔丁云著(79년 社會大卒·서울대조교수)

美·英·佛등 서구의 노동통계 발달을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파악.(삼성출판사刊·1만2천원)

公演

■소리—울트리오 모스크바콘서트

—8월1일 모스크바 문화재단홀

◇소리—울트리오

지난 83년 金正秀(65년 音大卒·클라리넷)동문을 중심으로 창단돼 그간 9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한국초연곡과 국내창작곡을 주로 발표해온 이들의 「러시아 고려인 광복문화재단」초청연주회·베토벤, 모짜르트와 국내 창작곡, 가곡, 민요등을 연주한다. 8월 5일에는 상트 페테르브르크공연. 피아노 金明珍(65년卒) 바순 崔峰洛(81년卒) 소프라노 白媛晶(69년卒)동문.

■李賢珣귀국피아노독주회

— 9월1일 7:30 세종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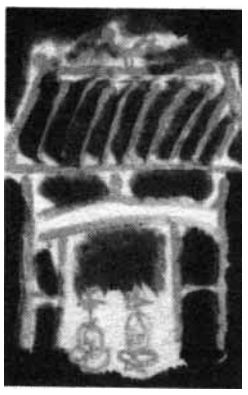
모교 音大(82년卒)를 거쳐 美위스콘신주립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李동문은 현재 同校조교로 재직하고 있는데, 88년 베토벤콩쿠르 수상을 비롯해 현지에서의 협연과 리사이틀을 통해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귀국무대에서는 헨델 베토벤 브람스를 비롯, 윌리암 볼컴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소곡」을 국내초연하게 된다.

◇이현순〈피아노〉

展示

■河秀京(74년 美大卒·紀全女專교수)

그의 그림들은 전통적 재료를 더 본격적으로 다루되 기법의 얽매임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자아낸다. 또 중첩되는 비유의 은근함과 제멋에 겨워 가도록 놓아둔 筆鋒에서 작가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시·75×47·1992·종이에 채색

同門수필

섬으로 가는 길

廉貞任

〔67년 文理大卒 수필가〕

진도에서 어느 문학 모임이 있다는 엽서를 받은 날부터 나는 남해 바다의 섬들을 그리며 가슴을 설레기 시작했다.

진도 완도 흥도 흑산도.

마치 하루종일 입안에서 맴도는 노래처럼 푸른 물결 위에 말없음표(……)로 떠있을 섬들을 외어보곤 했다.

내가 아직 한발짝도 내딛어 보지 못한 순결한 섬들. 어느 섬에는 육탈한 하얀 뼈가 하늘 아래 누워있는 초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진도에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갈라져 걸어서 건너편 섬에까지 이를 수 있다지 않는가.

섬은 나에게는 전설과 신비의 땅으로 새겨져 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 같은 곳이기도 하다. 순수함과 동경(憧憬), 이상, 그리고 잃어버린 꿈까지도….

진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그 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흰 치자 꽃이었다. 그 잊지 못할 향기. 어린시절 외갓집에서 처음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나는 이 세계가 꽃향기로 가득한 것인줄 알았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석류꽃, 멈불로 타오르는 주황색 능소화.

기억의 층계를 내려가면 바다에 이른다. 40년전의 바다가 거기에 있었다.

비취빛 옥돌처럼 부서지던 뱃전의 물보라. 바다는 여전히 젊고 나만 주름진 얼굴로 섬들을 마주본다.

섬, 섬, 섬섬옥수 같은 섬들은 뽀오얀 물안개로 아랫도리를 감싸고 조신하게 앉아 있다.

내가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며 허명(虛名)놀이에 숨가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섬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으리라.

회동 바닷가에 서 본다.

바닷 속으로 길이 난다는 곳. 얼마전에도 물길이 열려 건너편에 있는 모도섬까지 사람들은 걸어 갔다고 한다.

푸른 바닷물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물밑에서 놀던 낙지와 소라, 게들은 깜짝놀라 모래 위를 어기적거렸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여느 바다와 다름없이 파도만 철썩거리고 있을 뿐.

저 출렁거리는 물 밑에서 섬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내 가슴은 어쩔 수 없이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섬에 이른다.

또 하나의 「섬」에 …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숨어 있을까.

삭막하고 숨막히는 일상(日常)의 물결밑에 「섬」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기만 한다면….

파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하나씩 썰어 나간다.

모래 밭에 써놓은 이름, 모래 성(城)도 휩쓸어 나간다.

도시에서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리려 했던 것이 모두 도로(徒勞)였음을 파도를 보면서 깨닫는다.

섬에서 나는 순수했던 유년의 기억과 아득한 신비의 바다를 만났다.

그리고 잃었던 생명의 내재율을 다시 찾았다.

구성진 육자배기 가락을 뒤로 하고 진도를 떠난 후, 내 가슴 속에는 푸른섬 하나 떠있게 되었다.

母校소식

2학기 登錄 21日까지

92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들록이 오는 19일(水)부터 21일(金)까지 전국 각 지역 農協과 朝興銀行의 본·지점 및 출장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2학기 시작 및 개강은 8월24일(月)부터이다.

「乙巳조약」日帝가 날조

奎章閣 문서정리 과정서 밝혀져

日의 패권주의에 警鐘울릴 자료

◇奎章閣 전경

◇규장각이 공개한 乙巳條約의 원본. 권한을 위임했다는 高宗과 日王의 어새가 없다.

일제가 지난 1905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한 「乙巳條約」「丁未七條約」등 각종 조약과 식민지법령들이 당시 조선황제인 高宗의 인준을 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는 일본측에 의해 황제의 서명이 위조됐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모교 奎章閣(관장 韓永愚교수)이 1894년 갑오경장부터 1910년 합병직전까지 조선의 「勅令」「詔勅」「法律」등을 정리, 영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1905년 을사조약에는 高宗과 일본 국왕의 날인이 없으며, 순종즉위 이후 반포된 48건의 칙령에는 순종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이 위조된 칙령에는 일제가 우리의 조세기관을 접수한 근거가 되는 「財務署官制」「경시청官制」「法部官制」등 주요 식민지법이 모두 포괄돼 있다.

을사조약과 각종 식민지법은 그동안 日帝의 강제에 의해 최소한의 법적인 형식은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조약 및 법령들이 황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도 무효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교 사회학과 愼鏞廈교수는 『당시 을사5조약의 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일제의 갖은 협박과 회유를 거절했으며, 그 결과로 국제사회에까지 호소한 사실(헤이그밀사사건)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 국제정세의 개편을 틈타 다시금 아시아의 패권을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를 볼때 이번 발견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奎章閣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궁중도서관 겸 연구기관으로 창설된 것으로 1920년대에 모교에 넘겨졌으나 그간 이 귀중한 자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보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90년 가을 규장각도서관이 신축되면서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리·연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古圖書 15만점, 고문서 7만점, 木版 1만8천점등 도합 25만여점의 자료가 소장돼 있으며, 한국학 및 동양학의 제분야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국가적 유산으로 꼽히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후보추천 8월31일까지

모교에서는 제2회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을 선정키 위해 후보추천을 받고 있다.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의 후보는 모교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장기간 봉직한 교수로서 가급적 60세 이상인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모교를 빛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인 작년에는 국악발전에 공헌한 李惠求모교명예교수(국악)와 여권신장에 기여한 李兌榮동문(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개교기념식에서 수상, 가장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됐다.

人格·德望 갖추고 모교 빛낸분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교수人事

▲공과대학 교수 直元鎬=섬유공학과장 직무대리(7월3일字)

▲의과대학 부교수 李明哲=환경안전연구소 관리부장(7월13일字)

▲공과대학 교수 崔次鏞·교수 鄭泰鶴·부교수 李潤楨·부교수 劉永濟·농생대 조교수 徐眞浩·유전공학연구소 조교수 金秉祺=대학원협동과정 생물화학공학전공 겸임(7월20일字)

모으면資源 버리면 쓰레기

<환경보전 캠페인>

92年版「통계연보」發刊

海外활용위해 漢字로 표기

92년판 「통계연보」(92.4.1기준)가 기획실에서 발간됐다.

이번 연보에는 86~92년에 이르는 7년간의 자료가 수록됐으며, 기구개편에 따라 해당항목을 추가하고 동양권등 해외에서의 활용에 도움을 주기위해 종전 한글표기에서 한자표기로 바꾼것이 특색이다.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좌표의 설정에 널리 활용케될 이 자료에는 행정과 재정, 대학(원)현황, 연구기관 중앙도서관 및 지원·부속기관·법인 및 기타기관에 관한 통계가 수록돼있다.

BC카드로 奬學基金조성

사용액의 0.1% 모교에 寄託

동문들이 이용하는 信用카드로써 모교의 장학기금조성에 일익을 도모하는 방안이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BC카드(株)는 최근 「BC장학카드」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기존의 일반기능에 公益性을 도입키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모교졸업자를 대상으로 奬學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의 0.1%를 BC카드사의 이익금에서 적립하여 모교의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BC장학카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용카드의 일반기능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회원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의 일정율의 금액이 장학기금으로 자동 적립돼 모교에 전달되는 AFFINITY(친화, 친목)카드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금적립을 카드사의 이익금에서 충당하므로 회원의 추가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이외에도 카드에 모교출신임을 증명하는 이니셜이 명기되므로 ID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동창회비 자동납부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발급 방법은 기존 BC카드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출신학교명, 입학 졸업년도를 BC카드발행 13개은행 창구에 통보하면 되고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입회신청서 작성시 장학카드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